

아나시오의 영성수련 지침서

용서

재크린 시럽 버간 공저
마리아 슈완
강구영 옮김



주어 나를 받으소서 제2권

자은이



재크린 시럽 버간



마리아 슈완

용 서

기도의 안내서

재크린 시럽 버간 공저
마리아 슈완
강 구 영 옮김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2권

 성모출판사

Copyright © 1985
by Jacqueline Syrup Bergan, S. Marie Schwan.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text may be reproduced
by any means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St. Mary Editions Seoul, Korea 1992

“만일 우리가 죄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목 차

추천사.....	8
머리말.....	10
한국의 독자들에게.....	11
감수자의 말.....	12
역자의 말.....	14
서 문.....	17
표지 도안.....	20
일러두기.....	22
기도 안내	
A. 매일 기도 양식.....	23
1. 준비.....	23
2. 기도 시간의 짜임새.....	24
3. 기도 후 반성.....	24
B. 여러 가지 형태의 혼자 기도하는 방법.....	25
1. 묵상	25
2. 관상	26
3. 내심기도.....	27
4. 만트라	28

5. 묵상 독서.....	29
6. 영적 일기.....	29
7. 반복기도.....	30
C. 영적 훈련과 도움들.....	31
1. 의식 성찰.....	32
2. 신앙 체험 나누기.....	33
3. 기도중의 상상(想像)의 역할.....	35
4. 분심(分心)에 대한 대응책.....	35

어두움 밖으로

제1주: 제1일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로마 5, 6-11)	40
--	----

어두움의 선택

제2일 천사들의 반역(Ⅱ 베드 2, 1-22)	46
제3일 선택 : 자신이냐 하느님이냐(창세 3, 1-7)	51
제4일 죄의 승인(로마 5, 12-21)	55
제5일 한 사람의 타락(루가 16, 19-31)	59
제6일 반복.....	63

죄의 결과

제2주: 제1일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경고(에제 16, 1-22; 59-63).....	66
제2일 기억함 1(에제 16, 1-22 ; 59-63).....	71
제3일 기억함 2(에제 16, 1-22 ; 59-63).....	74
제4일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사무 11, 1-21. 27 ; 12, 1. 7-10. 13-25).....	76
제5일 깊은 구렁으로부터(시편 130).....	82

제6일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다(욥기 42, 1-6).....	87
제3주 : 제1일	실향(에제 35, 25-29).....	91
제2일	자비를 구하는 울부짖음(시편 51).....	96
제3일	반복.....	102
죄의 뿌리		
제4일	사랑에의 결심(마태 25, 31-46).....	104
제5일	갈등(로마 7, 14-25).....	110
제6일	당신은 선택해야만 한다(I 요한 2, 12-17).....	115
제4주 : 제1일	유혹(야고 1, 13-18).....	121
제2일	축복인가 저주인가(야고 3, 2-12).....	126
제3일	자아와의 대면(야고 4, 1-10).....	133
제4일	헛된 보화(루가 12, 16-21).....	138
제5일	위선의 가면(마르 7, 1-23).....	142
제6일	바리사이파 사람인가 세리인가(루가 18, 9-14).....	150
제5주 : 제1일	반복.....	154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용서		
제2일	용서하시는 아버지 (루가 15, 11-32).....	156
제3일	귀향 (루가 15, 11-32).....	162
지옥에 대한 명상		
제4일	죄후의 상실 1(히브 10, 26-29).....	168
제5일	죄후의 상실 2(히브 10, 26-29).....	173

제6일	최후의 몰락(요한 묵시록 18, 2 ; 21-23a)	175
-----	-------------------------------	-----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제6주 : 제1일	화해 : 용서의 시간(요한 20, 22-23)	184
제3일	감사의 눈물(루가 7, 36-50)	189
제3일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194
제4일	바울로의 부르심(필립 3, 7-10)	197
제5일	베드로의 부르심(루가 5, 1-11)	201
제6일	반복 : 나의 응답	205

부 록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207
성서 구절 색인	209

추천사

복음화 2,000년을 향한 거룩한 교회는 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목 계획을 수립, 작은 공동체에서 교구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초대 교회 모습을 닮아 '사귄'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하여 교회의 구성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서로 사귀고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공동체를 이룩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마음속 깊이 서로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구세주 강생과 수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유의 삶을 관상하고 우리의 교회를 복음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협력하기 위하여 믿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 책,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첫째권 「사랑」과 함께 둘째권 「용서」는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 나오는 다섯 권의 내용은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기초로 하여 평신도들을 위한 영신수련을 위하여 쓰여진 것인데, 최근에 와서 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미국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5개월 동안 50~60명의 교우들에게 '사랑'에 이어 '용서'의 영어 원본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4~7명의 소규모 모임과 50~60명으로 구성된 모임을 동시에 가지면서 그 분들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생활하고 나눌 수 있도록 영신수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 자신들과 가정과 작은 모임과 그 분들의 삶의 터전 안에서, 대규모 공동체 안에서, 쇠신된 삶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사랑이신 하느님과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과 봉사와 나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둘째권 「용서」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우리에게 읽혀지게 됨을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느님 백성 모두가 이 책을 통하여 영적심화와 복음화의 과정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이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2년 성신강림대축일

창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 창 훈

성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우리가 죄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요한I 1,8-9).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둘째권 「용서」는 첫째권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기도 안내서이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고요함과 희망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스러움을 대면하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도록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책은 하느님과 화해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오는 길잡이이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말씀에서 나왔으므로, 이 기도 안내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자(로마 6,11) 하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 기도 안내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충명을 넘치도록 주셨음”(에페 1,7-8)을 믿고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1984 년 12 월 31 일

빅툴 H. 볼크 주교

크룩스톤 교구장

한국의 독자들에게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를 한국말로 옮기고 출판한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 들은 순간부터 우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이 기도 안내서를 쓰면서 우리가 지닌 희망 중의 하나는, 철저히 성서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느님과 일치할 갈망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겪는 삶의 체험에도 충실한 기도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를 사용하여 혼자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책들 속에서 그분들 자신의 내적 여정을 위한 기본틀과 받침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진 하나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은총 가득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 인다운 모든 행동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재클린 시럽 버간

마리아 슈완 수녀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가 한국말로 출판되기까지는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본 감수자가 1987년 여름에 미국 위스컨신 주의 아시카 시에 있는 예수회 피정센터에서 이 책들의 두 분의 저자 중 한 분인 마리아 슈완 수녀님을 만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책들을 이용하여 여러 번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을 지도하면서, 한국의 신자분들도 이 시리즈를 쉽게 읽고 이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신적 진보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의 격려를 받고 이 책들을 곧 번역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의 학업 관계로 인하여 이 작업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인천 대건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신 강연중 선생님과, 미국 메사츄세츠 주 살렘 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강구영 박사님의 도움으로 우선 다섯 권의 시리즈 중에서 「사랑」과 「용서」를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번역을 담당해 주신 두 분과 마리아 수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가 한국말로 햇빛을 볼 수 있게 하는 데에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서울 대교구 창동 본당의 주임신부로 수고하시는 김창훈 신부님의 도움과 격려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 책들의 출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책들을 위하여 추천의 글까지 써주신 김 신부님께 지면을 빌어 주님의 축복을 빌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보스톤에 거주하시면서 한인 공동체의 평신도로서 봉사하시는 이배훈, 안승희 두 분 부부께도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평신도의 입장에서 용서의 초역 원고를 읽고, 수

정 보완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영문학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느라고 바쁜 중에도 영어의 낱양스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오진숙 자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두 권의 책이 우선 출판되기는 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두 책의 번역자가 서로 다르고, 두 분의 거주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랑」과 「용서」의 용어나 표현상의 일관성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이 책들은 풍부한 영적 체험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내면적 통찰과 묵상의 결과로 이루어진 작품이어서, 한국말로 옮기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 책들을 사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이 책들의 출판을 담당해 주신 성모출판사 정옥동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평신도 지도자로서 한국 천주교회의 복음화 사명의 중요한 몫을 해 오셨고, 특별히 한국 교회의 평신도 영성 생활에 필요한 좋은 책들의 보급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 형제님께 하느님의 축복을 빌면서, 독자 여러분들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992년 사순절

Boston College에서, 변희선 신부

역자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 캄캄한 어둠에 덮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출구조차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주여, 당신의 길을 제게 보여 주소서.

당신은 제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자학(自虐)과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 있었다. 그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렸고 삶을 낭비해 왔다는 자책(自責)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었겠는가?

방황하고 있던 역자에게 변희선 신부님께서 이 책을 번역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하셨다. 시간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던 역자는 흔쾌히 이 제의를 받아들였고 약 두 달에 걸친 예상외로 힘든 여정(旅程)에 오르게 되었다. 번역은 제2의 창조라는 말도 있지만 머리속에서 맴도는 뜻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다. 약 10년 전에 종속이론(從屬理論)에 관한 전문 서적을 번역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난다.

역자에게 보다 중요했던 경험은 “기도(祈禱)”와 “영신수련(靈神修鍊)”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번역의 과정에서 역자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렵듯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번역에 임하였다. 또한 자신을 사랑한

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잘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므로, 하느님께 의뢰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에,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역설적(逆說的)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한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느님,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느님,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치오니

저를 붙들어 주소서.

제게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역자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으며 마음속에서 혼란의 이품을 겪고 있다. 하느님은 여전히 멀리 계신다. 그러나 깊은 구렁텅이에 한 가닥의 빛이 들어왔다. 이제는 빛을 향하여 나아가면 출구가 나올 것을 안다. 그래서 비록 다리에 힘은 없지만 희망을 안고 빛을 따라 나아가려고 한다. 스스로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빛을 발견한 기쁨 속에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각 사람이 걸어야 하는 영적(靈的) 여정(旅程)은 다 다르다. 하나하나의 인간을 다르게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과 기대가 다른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얻는 것이 역자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께 철저하게 의뢰하는 “비법(秘法)”을 모든 이가 다 찾을 수 있

기를 간절히 바란다. 독자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히 내리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 드린다.

끝으로 역자가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있다.

먼저 이 번역을 제안하신 변희선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신부님은 하느님의 빛을 역자에게 가져다 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셨다. 또한 필자가 번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어려운 부분의 번역을 도와 주셨다. 바쁜 중에도 이 번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교정은 물론 비평을 서슴지 않으신 이배훈 선생님 내외분께 많은 빛을 졌다. 같이 웃고 울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번역을 도와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두 분의 진정어린 충고와 비판이 없었으면 이 만큼의 번역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테레사에게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한다. 역자가 스스로도 감당을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일 때 실망하지 않고 옆에 있어 주었고 하느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심어 주었으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 준 테레사였다. 아내의 위로와 눈에 보이지 않은 나를 위한 기도는 나를 지탱해 준 생명줄이었다. 역자가 망설이고 있을 때 이 번역이 하느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도 아내였다.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신 하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지금 창 밖으로 흰 눈이 내린다. 이 세상의 추함을 맑게 덮어 주는 눈이 우리 모두의 가슴 안에 내리는 꿈을 꾸어 본다.

1992년 2월 4일 밤

살렘에서

강구영(안토니오)

본 기도 안내서는 지난 여러해 동안 미네소타 북서부 전역에 걸친 본당 쇄신 피정을 실시하면서 우리가 목격한 영적인 목마름에 자극을 받아 펴내게 되었다.

신자들은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안내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털어놓았다. 교회의 영성적 전통의 중요한 자료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평신도들에게 접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성 이나시오의 영신 수련은 이 전통 중의 하나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보배이다. 성 이나시오의 영신 수련은 16 세기의 평신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 주기 위해 쓰여졌는데 최근에 와서 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영신수련은 성서, 내적 쇄신 및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꼭 부합한다는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 영신수련의 양식을 본당 쇄신 피정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개인 기도와 생활 환경을 연결시키면서 평신도들의 필요, 언어 및 생활 양식에 걸맞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용서」는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두번째 책이다. 각각의 책들은 알맞는 성서 구절들과 그에 관한 해설, 그리고 그에 따른 기도 안내들을 담고 있다. 각 권의 주제는 영신수련의 각 단계와 직접 연관되어 있지만 각 권을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시리즈의 첫째권 「사랑」에서는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에 들어 있는 주제들을 사용하였다. 그 주제들은 인간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 모든 피조물에 대한 불편심(不偏心), 그리고 투신 등이다. 「사랑」에서는 하느님의 사랑 및 그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그리고 자유로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며 하느님께 봉사하라는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등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둘째권 「용서」는 성 이나시오의 영신 수련의 첫째 주간과 관련된다. 첫째 주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개인과 인류 전체의 죄스러움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죄와 죄인의 문제를 고찰한다.

자기 자신의 죄스러움을 직면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성 이나시오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 문제에 관련된 성서 구절과 기도 안내들은 매우 단도직입적이다. 이 기도서의 한 부분에서는 자신의 죄스러운 면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죄를 범하기 쉬운 여러 가지 성향들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자기 자신의 죄스러움에 대한 부끄러움과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해 달라는 은총을 자주 간구한다. 부끄러움이 건강치 못한 죄의식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끄러움은 자신의 태도와 행위에 스며들어 있는 무질서와 이기심(利己心)을 의식적으로 깨닫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삼일 동안은 무시무시한 지옥의 가능성을 관상(觀想)한다.

이러한 묵상 또는 관상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책을 진지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혹시 어려움을 느낄 때 지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찾아볼 것을 권고한다.

이 기도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라는 부분으로 끝을 맺는다.

본 기도 안내서는 개인 기도를 복돋아 주기 위하여 특별히 편찬된 것이기는 하지만 작은 모임에서 신앙을 나누는 지침서로도 이용될 수 있다.

본 시리즈는 영신수련이나 그에 대한 해설서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본 시리즈는 다만 영신수련에서 발견되는 회심(悔心)이라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역동(力動, dynamic)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예의 접근 방법을 발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양분을 섭취하고, 그분의 각별한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 갖고 계시는 독특한 계획을 의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해설과 기도 안내에 남녀의 성(性)의 구분이 없는 말을 사용하려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전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지는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

중하고, 또한 이러한 변경에 마음이 상할지도 모를 사람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성서 구절의 말들을 고치는 것은 삼가하였다.

우리는 본 안내서를 사용하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 주셔서 하느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에페 1, 17-19).

1984년 대림 첫 주일

재클린 시럽 버간

마리아 슈완 수녀

자, 겨울은 지나가고
장마는 활짝 걷혔소.
산과 들엔 꽃이 피고
나무는 접붙이는 때
비둘기 꾸르륵 우는 우리 세상이 되었소(아가 2,11-12).

“즐거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계절”이 막 시작되었다; 교회 어디서나 기도 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겨울은 지나가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돌아왔다. 즉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봄을 알리는 전령(傳令)들 가운데 옛 보금자리에 돌아와 둥지를 트는 새들을 들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새들은 인간의 귀소본능(歸巢本能)뿐 아니라 창의적 충동이나 초월욕구의 상징이었다.

성서를 보면 자주 비둘기를 인용하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아가에서 비둘기는 봄을 알려 주고, 창세기에서 올리브 잎을 물고 온 비둘기는 홍수가 끝났음을 알려 준다(창세 8,11).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비둘기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마르 1,6). 첫 권 「사랑」의 표지에 있는 한 쌍의 비둘기가 사랑으로 초대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상징하듯이 제2권의 표지는 하느님의 조건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축복과 풍성함을 상징한다.

비둘기는 부른다 :

“나의 귀여운 이여, 이리 나와요…… 자, 겨울은 지나갔어요”(아가 2,10-11).

표지는 미네소타의 인기 화가 캄벨(Donna Pierce Campbell)이 도안하였는데 그 아름답고 싱싱한 양식은 이 기도 안내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채신의 성령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일러두기

이 책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우선 이 책의 맨 앞 부분에 나오는 기도 안내를 여러 번 읽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일에 다른 영신 서적이나 소설처럼 이 책을 읽으신다면, 원 저자의 본래의 지향에서 벗어나게 되고, 독자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가 없겠습니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 생소하신 분들에게서 이 책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영적인 조언자들(사제, 수도자, 평신도)을 만나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영신수련에 대한 체험과 지혜가 풍부하신 분을 중심으로 신앙 체험 나누기 모임을 가지면서 이 책자를 이용하는 것이 초심자들에게는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성서 구절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공동 번역 성서를 원본대로 인용하였으나, 최근에 출판된 200주년 신약 성서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판 원본에는 참고 서적들에 대한 인용이 표시되어 있으나, 한국 독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한국말로 출판된 참고 서적들 중에서 몇 권을 소개합니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윤양석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샘 — 영성 수련을 위하여 앤소니 드 멜로, 분도출판사편집실 역, 분도출판사.

성경과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의한 파정 토마스 버크, 샬트르 성바오로 수도회 역.

여섯 개의 길 G.허치슨, 차순향 옮김, 성바오로출판사(77-106쪽).

영적 성장과 내적 치유 J.J. 윌러, 박홍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기도 안내(Orientations)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루가 11, 2)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이다.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신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이신 그 분께 응답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제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응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A. 매일 기도 양식

기도 할 때마다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십시오:

1. 준비

- + 매일 기도 시간을 최소한 2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잡도록 한다. 60분이라는 시간에 어떤 “신성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기도에 몰입하는 데에는 대개 한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 + 전날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그 다음날의 성서 구절과 해설을 미리 읽는다. 잠들기 바로 전에 성서 구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2. 기도 시간의 짜임새

- + 조용한 가운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십시오. 긴장을 풀고 숨을 깊게 들여마신 후 넷을 셀 동안 숨을 멈추십시오. 그런 다음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십시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 + 하느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예민하게 감지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 + 하느님께 당신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은총을 구하십시오.
- + 당신이 선택한 성서 구절을 내용에 알맞는 방법으로 읽고 반성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시적인 구절이나 이야기 형태를 취하지 않은 구절은 묵상(默想)을 하고, 이야기 형태를 취한 구절이나 사건에 관한 구절은 관상(觀想)을 하십시오.
(25쪽에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혼자 기도하는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 + 예수님이나 하느님 아버지와의 담화(談話)로써 기도를 마치십시오.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치십시오.

3. 기도 후 반성

기도 후 반성은 기도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하는 성찰이다. 기도 시간중에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존하셨는지를 보다 깊이 깨닫는 것이 이 반성의 목적이다.

기도 후 반성 시간에는 주로 기쁨, 평화, 슬픔, 두려움, 갈등, 분노 등을 느끼는 우리의 감정 안에 드러나는 위안이나 쓸쓸함의 내적인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인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구한 은총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 기도 후 반성 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

기도 후 반성을 영적 일기에 적음으로써 우리는 인격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 일기는 우리의 영적 여정(旅程)의 귀중한 기록이다. 영적 일기의 기록은 우리의 자아

완성을 향한 하나의 디딤돌이다.

영적 지도자나 영적 반려자가 없는 경우 영적 일기의 기록은 기도를 평가하고 명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경우 영적 일기의 기록은 자신의 기도 체험을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준비 자료가 된다.

기도 방법: 매 기도 시간 이후 공책이나 영적 일기장에 날짜와 그 날의 성서 구절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 아래의 질문들에 답을 해 보십시오:

- + 특별히 나의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구절이 있었는가?
- + 나의 느낌은 어떠했는가? — 평화스러웠는가? 사랑을 느꼈는가? 슬펐는가? 실망했는가?
- + 이러한 느낌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 +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깊이 느끼는가?
- + 다음에 기도할 때 도움이 될만한 점이 있었는가?

B. 여러 가지 형태의 혼자 기도하는 방법

성서를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사람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는 기도 방법이 다르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봄으로써, 마침내 특별한 성서 구절에 적합하고 우리의 개성이나 필요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익숙해 질 것이다.

본 안내서는 다음의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다:

1. **묵상:** 묵상 시간에는 마치 연애 편지를 대하듯이 성서 구절을 읽는다; 이 방법은 시적인 성서 구절을 기도하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

기도 방법 :

- + 성서 구절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크게 소리를 내어 읽든가 속삭이는 소리로 읽으면서, 성서 말씀이 당신을 감싸도록 하며 그 맛을 음미하십시오.
- + 특히 당신의 관심을 끄는 부분에 머물면서, 마치 매마른 땅이 비를 받아들이듯이 그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 + 한 단어나 구절을 되풀이 되뇌이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느낌들을 감지하십시오.
- + 마치 사랑하는 친구의 편지를 읽듯이, 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합창노래를 부르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서 구절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2. 관상 : 관상을 통하여 우리는 성서 구절의 사건이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우리의 전 오관(五官)을 사용하여, 상상 속에서 성서 구절 안으로 들어간다.

신학자들은 우리는 관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를 회상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23, P.149).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듯이, 세례 성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영(靈)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 예수님의 영(靈)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어떤 신비를 상기시키시고 재생케 하신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 안에 빠스카의 신비를 재현하시듯이, 예수님께서는 관상을 통하여 우리가 관상하는 특별한 사건을 재현하시며 그 신비 안에 현존하신다.

기도 방법 :

관상 기도중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

- +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관찰하십시오 ;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으십시오.
- + 그 신비의 일부가 되십시오 ; 그 현장 속의 한 사람의 역할을 맡으십시오.
- + 각 개개인을 잘 관찰하십시오 ; 각자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각자가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 + 내가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나의 삶이나 나의 가족 또는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성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담화(談話)하십시오.

- +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바로 거기에 계십시오.
- + 예수님을 원하십시오 ; 예수님을 향한 배고픔을 느끼십시오.
- +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 +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되고자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하십시오.
- + 예수님께 응답하십시오.

3. 내심기도 : “내심기도 시간에 우리는 생각과 이미지를 초월하고, 감각과 이성을 초월하여 우리 존재의 중심부로 내려간다.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25, p.18).

내심기도는 대체로 말없이 행하는, 아주 간단하며 순수한 기도 방법이다 ;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드리는 것이다.

내심기도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중심부까지 내려간다. 그 곳은 우리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고요함의 장소이다. 내심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의존함을 인정하고 사랑의 성령께 자신을 송두리째 내맡겨야 한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 8, 26).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께서는 “아빠, 아버지” (로마 8, 15)라고 외치신다.

기도 방법 :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시편 46, 10).

- + 조용히 앉아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풀으십시오.
- +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바라는 마음을 견지하십시오.
- + 당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다거나, 계단을 걸어 내려간다거나, 산을 내려간다거나, 깊은 연못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보다 쉽게 당신의 깊은 자아의 중심부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 + 고요함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십시오 :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들이십시오.

4. **만트라 :** 내심기도의 한 방법으로서 “만트라” 또는 “기도말”을 사용한다. 만트라는 한 단어일 수도 있고 한 구절일 수도 있다.

성서에서 따온 말일 수도 있고 당신의 마음 안에서 순간적으로 우러나온 말일 수도 있다. 당신에게 있어서 그 말이나 구절은 하느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알려진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를 외우는 것이 만트라의 일종이다.

기도 방법 : 자신의 호흡에 맞추어 만트라를 천천히 반복한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기도의 첫 부분은—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숨을 들이 마시면서

하고 뒷 부분은-이 죄인을 붙잡히 여기소서-숨을 내쉬면서 한다.

5. **묵상 독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주시면서 그 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배부르게 먹어라.’ 그리하여 그 것을 받아 먹으니 마치 꿀처럼 입에 달았다”(예제 3,2-3).

성서나 영적 서적을 묵상하면서 읽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이다.

영적 독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 생활을 풍부하게 해준다. 아래의 방법은 특히 기도가 어렵거나 무기진조할 때 도움이 된다.

기도 방법: 영적 독서를 천천히 하면서, 가끔 독서를 중단하고 어떤 말이나 구절이 우리의 몸 안에 스며들도록 한다. 어떤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면 그 생각을 계속하고, 그 생각의 전부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도록 한다.

당신 안에 받아들이는 말을 음미하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하듯이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응답하십시오.

6. **영적 일기**: “이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간단히 적은 바 있으므로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예제 3,4).

영적 일기는 묵상의 기록이다. 우리가 펜을 들어 우리의 생각을 종이에 옮길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서로 협력하여 우리의 참된 자신을 드러낸다.

영적 일기를 쓰는 것은 다른 기록들과는 차이가 있다.

영적 일기를 씀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신선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며 이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체험한다. 따라서 영적 일기를 잘 쓰기 위

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려야 한다.

묵상 기록은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같다. 지나간 추억들이 되살아 나고,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된다. 편지를 쓰는 동안에 우리의 감정들이 더욱 강해지고 오랫동안 남아 있음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영적 일기의 기록은 분노, 두려움, 또는 원한과 같은 드러나지 않고 억눌렸던 감정들을 확인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 일기를 씌으로써, 우리가 읽는 성서의 말씀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기도 방법: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 일기를 기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 a. 하느님께 편지 쓰기
- b.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기록; 다른 사람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다른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다. 어떤 사건이나 경험, 또는 가치와 대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죽음, 이별, 지혜 등을 의인화(擬人化)하여 그와 더불어 대화할 수 있다.
- c.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기록; 예를 들면, “내게 무엇을 바라느냐?”(마르 10, 51) 또는 “왜 울고 있느냐?”(요한 20, 15).
- d. 예수님이나 다른 성서의 인물이 펜을 통하여 나에게 “말하게” 한다.

7. 반복기도: “내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다른 주제를 다루지 않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조용히 묵상하겠다.”—성 이냐시오 로올라 (72, p.110)—

반복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시어 일하시도록 지난 기도 시간

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반복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잘 느낄 수 있고 우리의 기도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더욱 잘 알아들을 수 있다. 우리는 반복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반복기도는 지난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한 방법이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지난 번에 가졌던 대화를 회상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하셨지요?” 하고 묻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 반복-추후의 대화-을 통해서 첫 기도 시간에 느꼈을지도 모르는 슬픔이나 후회를 변화시키시는 치유의 현존에 우리 자신을 열어드린다.

반복기도 시간에는 위로(기쁨, 파스함, 평화)의 느낌이 깊어질 뿐 아니라 쓸쓸함(고통, 슬픔, 후회)의 느낌도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기도 방법: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기쁨이나 슬픔 또는 혼란을 두드러지게 체험한 때의 기도를 선택하여 반복한다. 아마도 기도 준비의 부족으로 아무런 느낌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의 기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 + 지난 번 기도 시간에 체험한 느낌들을 상기하십시오.
- + 출발점으로 지난 기도 시간에 가장 두드러졌던 장면이나 말 또는 느낌을 사용하십시오.
- + 기도 시간중에 성령께서 당신 마음의 내적 움직임을 이끄시도록 하십시오.

C. 영적 훈련과 도움들

1. 의식 성찰 :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흔히 아십니다”(시편 139, 1).

우리는 의식 성찰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현존하셨으며, 우리는 그날 하느님의 현존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발견하게 된다.

성 이냐시오는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었다. 성 이냐시오는 우리가 기도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에도 의식 성찰은 반드시 해야 하며, 이 성찰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의식 성찰을 통회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양심 성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의식 성찰은 우리의 일상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환경, 감정들 안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시기를 알아내는 것이다.

기도 시간 후에 기도 후 반성을 하듯이 우리는 하루 생활이 끝난 후 의식 성찰을 한다. 의식 성찰을 매일 제대로 실천하면 하느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라나게 하는데 필수적인 완전한 균형을 얻게 된다.

의식 성찰은 다음을 반영한다 : “인격적인 사랑의 역동적인 움직임 :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고자 원하는 순서대로 말하고 싶어한다.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10, pp. 34-35).

방법 : 의식 성찰을 위해 다음의 기도를 제안한다.

이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을 영적 일기에 함께 기록할 수도 있다.

+ 아버지 하느님, 저는 온전히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선물이며 모든 것이 당신의 은총이나이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 주님, 당신은 시간을 통하여 시간 안에서 제가 제 자신을 밝히 들여다 볼 수 있게

일하심을 믿나이다. 당신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꾸며주시는지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제가 당신의 길에 놓는 장애물들을 보다 예민하게 알아낼 수 있도록 해주소서.

+ 당신은 오늘 제 삶 속에 함께 계셨나이다. 이제 제가 다음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제게 가까이 오소서 :

오늘의 사건 안에 현존하신 당신……

제가 느꼈던 감정들 안에 현존하신 당신……

당신의 부르심……

저의 응답……

+ 아버지, 당신의 사랑의 용서와 치유를 간청하옵니다. 제가 치유되기를 가장 바라는 오늘의 특별한 사건은……

+ 당신의 사랑과 권능을 굳게 믿으며 희망에 가득 차 제 자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며……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고 바라는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에게 그 은총을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을 굳게 확신하나이다.

2. 신앙 체험 나누기 :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마태 18, 20).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핵심 문제에 대해 공동체원 상호간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가야 한다. 그리스도 인들에게 이러한 대화란 신앙 체험을 나누는 것이며, 이것은 혼자서 하는 매일 기도의 연장이다.

신앙 체험 나누기 모임은 토론 집단도 아니고 감수성 훈련이나 사교 모임도 아니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지적 또는 신학적 견해를 나누고 얻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다. 신앙 체험 나누기는 미리 설정한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신앙 체험 나누기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집단으로 대표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하여 몸소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다. 신앙 체험 나누기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이다(에페 4, 12).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은 신앙 체험 나누기의 한 방법이다. 신앙 체험 나누기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 나누도록 우리를 부른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체험 나누기는 공동체를 결속시키시는 힘이신 그리스도의 영(靈)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됨을 의미한다.

신앙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이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약돌이 떨어지는 풀장을 상상해 보라. 풀장 주위에 모여 있다고 상상하면서 회원들은 원형으로 모인다. 물 속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조약돌처럼 각 회원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눈다. 모두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각자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동심원들을 그리며 풀장의 가장자리로 변해나가는 물결처럼, 이 말씀들은 원 주위에 둘러선 각 사람의 마음속으로 사랑 안에서 확대되고 번져 나간다.

방법: 미리 약속한 장소에 일곱 명 내지 열 명의 회원이 모인다.

+ 지도자는 회원들에게 얼마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라고 초대한다.

이때 회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 지도자는 즉흥적인 기도나 미리 준비한 시작기도로써 침묵의 기도를 모은다.

+ 회원 중의 한 사람이 미리 정해서 각 회원이 혼자서 기도하며 묵상해 온 성서 구절을 읽는다.

+ 성서 봉독 후 잠시 침묵한다.

+ 지도자는 각 사람에게 성서에 나오는 한 단어나 구절을 함께 나눌 것을 초대한다.

+ 다른 회원이 그 성서 구절을 다시 읽는다; 그 후 잠시 침묵한다.

- + 지도자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서 구절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말해 주는지 -도전, 위로, 초대 등 -간단히 나누도록 초대한다.
- + 그 성서 구절을 다시 읽는다.
- + 회원들은 주님께 즉흥적인 기도를 바친다.
- + 지도자는 축복의 말이나 주의 기도 또는 성가로 신앙 체험 나누기를 마친다.
- + 헤어지기 전에 다음의 모임을 위한 성서 구절을 발표한다.

3. 기도중의 상상(想像)의 역할

상상이란 우리가 과거의 체험을 되살리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회상하는 능력이다.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존재의 중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표면에 끌어 올려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영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지는 의미의 여러 차원을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보다 깊은 현실을 상징한다.

활력있는 상상을 체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완전성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활력있는 상상을 신앙의 자세로 기도에 이용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의 권능과 신비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된다.

성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이고 감각적인 영상들을 풍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성서를 기도할 때 활력있는 상상을 이용하는 것은 특히 효과가 있다.

성서 이야기를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어 하느님의 창조적인 말씀의 진리와 신비를 우리의 삶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4. 분심(分心)에 대한 대응책

기도중의 분심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 분심이 생기면 그냥 그대로 두고 기도의 소재로 돌아가면 된다. 만약 분심이 계속되면, 그것은 분심의 대상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미결 상태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 도

주 하느님, 당신의 사랑이 넘쳐 흘러

만물을 지으셨을 때

이미 당신은 저를 생각하셨나이다.

저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위해

존재하나이다.

오! 하느님! 나의 마음이 항상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당신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을 찬미할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모든 사람과 만물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봉사하는 힘을 제게 주소서.

주 하느님,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건강도 질병도

부(富)도 가난도

명예도 치욕도

장수(長壽)도 단명(短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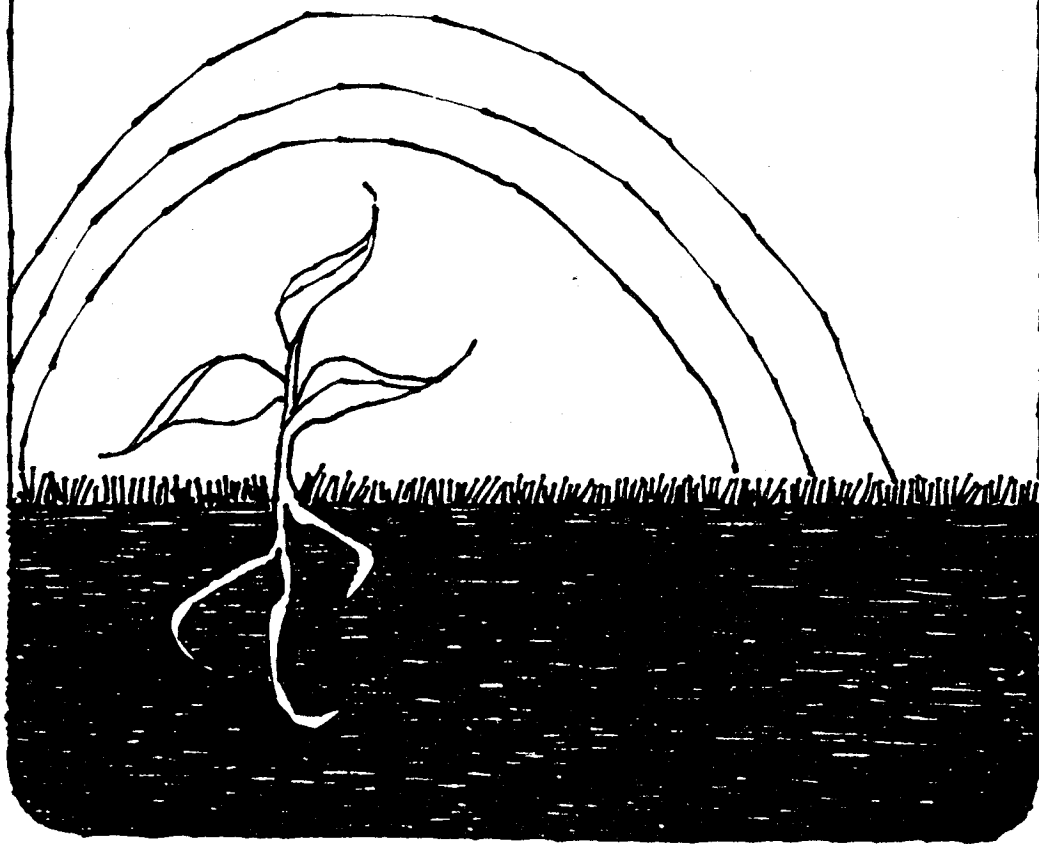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것 이외의 그 어느 것도

구하거나 택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어두움 밖으로



첫째 주, 첫날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로마 5, 6-11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으니 그리스도의 덕분에 하느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던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 분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우리는 지금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해설 :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셨다(요한 3, 16).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차며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하는 힘이다.

페이야르 드 샤르댕은 이렇게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인류는 바람, 바다, 조류(潮流) 및 중력(重力)을 정복한 후 언젠가는 하느님을 위하여 사랑의 에너지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인류 역사상 두번째의 불(火)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체험한 이 사랑의 힘은, 마치도 불의 섬광과도 같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어느 특별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차린 그 첫 순간을 회상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 때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다.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놀라움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당신에 비해서 너무도 훌륭하고 자신에 가득 찬 분으로 느껴졌었다. 당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분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매력을 느꼈다니!

이 놀라움을 느낀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으리라.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묻지는 않았는가?

당신은 “이것은 일시적인, 한 순간의 장난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당신은 혹시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요” 라며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어쨌든 그 분의 사랑은 너무도 숭고하여 오랫동안 거절할 수 없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고 당신 스스로를 그 분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당신은 언제 처음으로 그 분의 사랑에 응답하였는지 기억하는가?

사랑은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 변화는 흥분과 즐거움과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최초의 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변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마침내 우리를 완전으로 이끌 때까지 계속된다. 즉 우리의 참 모습 -사랑을 받으며 또한 사랑을 주는 사람-을 실현할 때까지 계속된다.

한 순간의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이 바로 기적이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까지도 돌보지 않고 우리를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그 사람의 충실성만큼 놀라운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짐을 생각할 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더욱 놀랍고 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우리 인간

의 사랑이 지향하는 이 사랑은 사도 바울로가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로마 5,5) 바로 그것이다.

아무튼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변화를 가져오고 생명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이를 훨씬 초월한다.

이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한 신비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더 크다거나 좋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표현이다. 하느님은 부모, 연인, 친구보다 더 훌륭하다거나 좋은 분이라고 비교해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직관(直觀)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사랑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얼굴을 더듬는 맹인과도 같다.

비록 깨지기 쉬운 약한 우리의 사랑이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성실한 사랑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안에 육화(肉化)된 사랑-의 참 모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하느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완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한 속죄양으로서 하느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 상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가가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도록 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 내에서나마 우리의 배우자나 자식, 또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우리 자신을 상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울로 사도가 말한 대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

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궁극적인 표시였다. 그 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 할 수 있었던 그 이상의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분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다.

그 분의 죽음을 가져온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며 변화시키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그러나 여전히 고난의 상처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선(善)으로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시며 당신 사랑의 현존을 계속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현존으로 초대받았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믿는 것, 즉 “예” 하고 그 분의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우리는 비록 계속해서 상처를 지니고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기쁘게 굴복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드러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놀라움이며 아름다움이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음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우리가 기쁨과 희망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느님 사랑의 성령이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 그득히 부어졌다.

기도 안내

십자가 앞에서

+ 매일 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위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묵상 (25~26쪽)

오늘의 성서 구절과 해설을 천천히 다시 읽는다. 그 말들이 나 자신을 감싸게 하며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구절들을 음미한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 팔을 벌리고 십자가 상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 -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그분의 사랑 - 을 듣는다.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나는 내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 왔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그분의 사랑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 마침기도 : 주의 기도

+ 기도 후 반성 :

이 기도중에 떠오른 모든 느낌과 위의 질문에 대한 나의 모든 응답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II 베드 2, 1-22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이는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 방종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을 채우려고 감언이설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오래 전에 이미 그들을 단죄하셨으며 그들은 반드시 파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지는 천사들을 용서없이 깊은 구렁텅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느님께서서는 옛날 사람들이 당신을 배반했을 때에 홍수를 내리셔서 그들을 가차없이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부르짖던 노아의 일가 여덟 사람만은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단죄하여 잿더미로 만드셔서 후세에 하느님을 배반할 자들에게 보일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방종에 빠진 무도한 자들에게 시달리던 착한 롯은 구해 내셨습니다. 착한 롯은 그들 사이에서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무도한 행실을 보고 듣게 되어 착한 마음에 큰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흥에서 건져 내시고 악인들은 심판 날까지 계속 벌을 받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히 육체의 더러운 욕망에 빠져 사는 자들과 하느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당돌하고 거만해서 영광스러운 천사들에게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 악인들은 마치 잡혀서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헐뜯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 짐승들처럼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들의 불의의 값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대낮에 훗청거리며 노는 것을

낙으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방탕한 짓을 즐기며 **타락** **혼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음욕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죄만 지으며 들뜬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는 데만 잘 훈련되어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앞서** 일맞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소득**을 좋아하던 보소르의 아들 발리암이 간 길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발리암은 자기가 **저지**는 잘못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서 이 **예언자의 마련**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물 없는 샘이며, 폭풍에 밀려 가는 안개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깊은 암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한 큰소리를 하며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로부터 가까스로 빠져 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탕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남들에게는 자유를 약속하면서 그들 자신은 부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정복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정복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밀려 들어가서 정복당하고 만다면 그런 사람들의 나중 처지는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을 **알았다**가 도 지키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올바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개는 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는 몸을 씻겨 주어도 다시 진창에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 맞았습니다.

해설 :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악령이 하나님께 거역하였다는 전승(傳承)이 성서를 통하여 여러 군데에서 보여지는데 위의 성서 구절은 그 중의 하나이다.

유대교 및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고유한 이 사상은 ‘천사들의 타락’이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으로 창조하신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었다. 이 천사들은 “빛을 나르는 자”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루치펠의 지도를 받고 있었

다. 천사들은 자유롭고 순수한 영(靈)이었으며 자유 의지를 선물로 받았다.

하느님은 어떤 궁극적인 선택을 요구하심으로써 천사들의 자유를 시험하셨다. 몇몇 천사는 이 시험에 실패하여 암흑의 구렁텅이로 떨어졌다. “빛을 나르는 자”였던 루치펠은 그 때부터 어둠의 왕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무엇으로 천사들을 시험하셨는지는 확실하게 모른다. 성 토마스는 으뜸이고 싶어하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시험하셨으리라고 말한다. 순수한 은총으로 창조된 천사들은 죄에 물들지 않게 되어 있었다. 천사들이 하느님을 거역한 것은 그들이 자유 의지로 선택한 행위였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느님께서 천사들에게 아기 예수 안에 육화되실 하느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 주시고 예수님을 흠송하라고 명하셨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아기 예수에게 흠송할 것을 거부한 것이 바로 천사들의 죄였으리라는 것이다.

반항한 천사들은 바로 그 거역의 순간에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이 천사들의 타락 이야기는 집단적(集團的)이고 우주적(宇宙的)인 죄의 현상이 우리들 자신 안에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표현이다.

핵무기(核武器) 및 첨단 기술이 발달한 현 시대를 감싸고 있는 어둠을 실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순수한 영혼 속에서도 일어나는 죄의 본성과 우리의 깊은 심연(深淵)에 존재하는 죄에 물드는 본성”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은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마치 거울과도 같다. 이 거울을 통하여 천사들의 타락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취한 하느님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선택들을 비춰 보게 된다. 그것도 천사들처럼 한 번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되풀이 하여 거역하였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가 당면하였던 여러 파괴 세력들을 열거하면서 이 천사들의 타락 이야기를 한다. 거짓 교사들, 선동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가진 부패한 정치인들이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파고 들어오고 있었다. 탐욕에 가득 찬 부패한

지도자들은 사회적 자유라는 허황된 기대를 약속하였다.

베드로는 과거의 예를 들면서 사람들에게 곧 닥쳐올 징벌을 경고한다. 그는 이상적인 인물로서 악의 와중에 살면서도 깨끗하게 타협하지 않았던 노아와 롯을 제시한다.

천사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은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

기도 안내

거울을 바라보며

+ 매일 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천사들이 지은 단 한 번의 죄의 결과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특별히 나 자신의 수많은 이기적인 행동들을 돌이켜보면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이 해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는다.

기억과 상상의 거울 속을 들여다 보는 내 자신을 그려본다. 천사들의 타락 이야기가 내 앞에서 펼쳐지도록 한다.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이 이야기 -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 하느님께 거역한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본다. 하느님의 사랑을 거역했던 나의 선택들과 행동들을 바라본다.

+ 마침기도 :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상상해 본다. 이 신비에 대하여 내 마음속의 담화로 그리스도께 말씀드린다. 하느님의 사랑을 거역한 단 한 번의 죄로 천사들은 저주를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2권

받았다. 그런데 거듭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계속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나는 여전히 삶을 허락받았고 여러 번 “두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

이 기도중에 떠오른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창세 3, 1-7

아뵘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이나?”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느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를 꺾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 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 주었다. 남편도 받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리웠다.

해설:

“내가 소속한 인류 가족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

창세기 3, 1-7 에서 보여지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마치 연극 속의 등장 인물들처럼 아담과 하와와 뱀이 무대에 등장한다. 이 연극을 보고 들으며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시대를 역류해서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깊은 내면을 직시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인류 가족의 집단적 연대성(連帶性)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은 유산의 하나인 이 이야기는 4천년 이상을 상징과 시(詩)와 민간 설화의 형태로 전해 내려오면서 더욱 풍부해졌다.

그 무대는 태초에 축복받은 에덴의 동산이다. 아담과 하와는 순결한 자유의 상태에서 그 곳에 거주한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고 매일 저녁 그들과 함께 거니시는 하느님과 매우 가까운 친구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단 한 가지 조건은 선악과(善惡果) 열매를 따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선악과 나무에 대한 금령(禁令)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위험을 안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조건을 내거신 것은 질투심이나, 하느님과 경쟁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인간 개개인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성을 추구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

하느님께서는 이 완전성은 인간이 자신의 피조물성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사랑에 승복(承服)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 인간이 자신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욕구는 너무도 강렬하여 그 자체가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참 모습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자기 거부가 하느님을 거부하도록 이끄는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이 금령(禁令)은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느님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법(法)의 표현이었다. 하느님께서는 그 법을 보호하고자 하신 것이다.

이 선악과(善惡果)에 관한 공통적인 해석들 - 쾌락, 소유욕, 권력 등 - 은 모두 완전성을 지향(志向)하는 자아(自我)의 추구하고 연결되어 있다.

궁극적인 선택은 결국 자신이나 아니면 하느님이나 하는 것이다.

여기에 뱀이 등장한다! 뱀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악(惡)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히브리 인들에게 뱀은 치유의 힘, 마법(魔法), 그리고 무한한 힘을 가진 암흑의 세력을 상

정한다. 이 뱀의 형태를 통하여 인간의 창조 안에 숨어 있는 유혹(誘惑)의 질문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져진다.

하와와 아담은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여인은 “그 열매를 따 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 주었다. 남편도 받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그들이 새로 발견한 세상은 그들이 그렸던 세상과는 달랐다. 그것은 오히려 암흑의 세상이었다.

그들은 하느님 눈에 띄이지 않으려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산들 바람이 불 때 하느님께서는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다.

그들은 두려움과 수치심에 가득 찼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였고 뱀에게 핑계를 대었다.

하느님의 최초의 창조물인 천사들의 타락은 최초의 인간 피조물에 의해서 재연(再演)되었다.

이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담과 하와는 순결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다.

기도 안내

+ 매일 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아담과 하와가 범한 단 한 번의 죄의 결과를 묵상하면서, 수많은 나의 이기적이고

죄스러운 선택들을 돌이켜보고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관상 (26~27쪽)

나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닌다. 상상의 세계 안에서 나는 아름다운 꽃들의 향기와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평화로이 거니는 동물들을 즐겁게 바라본다. 하느님과 이야기하며 같이 거니는 아담과 하와를 나는 따라다닌다. 나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상상속에 재현한다: 뱀의 등장, 아담과 하와의 거역, 그리고 그 죄의 결과까지.

+ 마침기도 :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상상해 본다. 나 자신의 말로 그리스도께 말씀드린다. 하느님의 사랑을 거역한 단 한 번의 죄로 천사들은 저주를 받았다. 똑같이 단 한 번의 죄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자주 하느님보다는 나 자신을 선택한 나는 여전히 벌을 받지 않았다. 어떻게 내가 아직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

이 기도중에 떠오른 모든 내적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로마 5, 12-21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 들인 것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다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가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지배하였는데 아담이 지은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경우와 아담이 지은 죄의 경우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과 아담의 죄는 그 효과에 있어서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은총의 경우에는 죄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크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올바른 행위로 모든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길이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법이 생겨서 범죄는 늘어났지만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세상에 군림하여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은총은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해설: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이 지은 단 한 번의 죄로 암흑과 고통이 뒤따랐다.

암흑과 고통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 아무도 그 암흑의 거대한 손아귀에서 벗어 날 수 없다. 그것은 전 인류 가족 속으로 그리고 땅 그 자체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단 한 번의 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역사 속에 그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사회 구조나 조직 또는 기구(機構)도 현존하는 죄의 병적인 근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를 각자는 아담과 하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하고 역사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 원죄(原罪)의 대가를 짊어져야 한다. 이 과거의 사건은 우리의 현재의 현실과 아무런 관련없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 과거의 사건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우리 각자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승인하는 것이다.

암흑은 암흑을 초래한다:

- 카인과 아벨로 인한 가정의 파괴 (창세 4, 1-16)
.....그 당시뿐 아니라 현 시대에도.
- 바벨탑에서의 의사소통의 단절 (창세 11, 1-9)
.....그 당시뿐 아니라 현 시대에도.
- 죄악의 범람 (창세 6, 5 이하)

.....그 당시뿐 아니라 현 시대에도.

이 암흑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두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I 고린 15, 22).

하느님 아버지께 철저히 의탁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아담의 선택을 뒤바꾸어 놓으셨다. 예수님 안에서 아담의 선택, 즉 죄는 무효화 되었다.

바울로 사도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견주어 설명한다. 그렇다고 아담과 예수님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반대 세력인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죄가 범람한 곳에 생명이 더욱 풍만하다”(로마 5, 21 편역).

선은 악을 훨씬 뛰어넘으며 죽음과 파멸로 이끄는 죄는 예수님 안에서 극복된다.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죄의 결과를 돌이켜보면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현 세상에 죄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고 또 죄가 얼마나 우리를 파괴시키는지 인식하면서 바울로의 서간문과 해설을 주의 깊게 고찰한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2권

+ 마침기도 :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죄의 신비에 대하여 곰곰이 묵상해 본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가슴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말씀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

이 기도중에 떠오른 모든 내적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루가 16, 19-31

"예전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들이 들어다 놓은 라자로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다. 더구나 개들까지 몰려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얼마 뒤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 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이 라자로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라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짖어 제 혀를 축이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하고 애원하자 아브라함은 '해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라자로의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 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 오지도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부자는 또 애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소원입니다.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저에게는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하고 대답하였다.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가야만 회개할 것입니다'하고 호소하였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해설: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 자체는 죄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부자였다.

그는 물질적으로 부유했다: 좋은 천으로 만든 붉은색의 화려한 옷을 입었다. 그 옷의 붉은 색깔을 내는 염료(染料)는 외국의 조개류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었는데 그것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나 쓸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색깔 자체가 또한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었다.

매일같이 일류 요리로 가득 찬 잔치가 벌어졌다! 고기가 귀했던 나라에서 그는 매일같이 고기를 먹었다.

그는 특권이나 지위로 보아서도 부유했다.

그는 사두가이파 사람으로서 기반이 든든한 기성 종교의 한 일원이었다. 이 특정한 종교 집단의 일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권력과 영향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면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사두가이파 사람으로서 사후(死後)의 세계를 믿지 않았던 이 부자는 공교롭게도 죽은 후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저주를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저주받은 사람들과 하느님의 면전에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놓인 심연(深淵)을 바라본다. 그때 라자로가 아브라함의 환영을 받으며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때 처음으로 이 부자는 비로소 라자로를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라자로를 그의 종처럼 다룬다.

이 부자의 죄는 그의 재산이나 지위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는 공공연히 또는 일부러 악독하게 군 것도 아니었다. 어쨌든 그는 라자로를 그의 문전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라자로가 음식 찌꺼기를 줍어 먹는 것을 금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라자로를 의식하지 않았으며 바로 그것이 그의 죄였다!

라자로를 그 부자에게 있어서 사회 구조상 불가피한 존재, 즉 항상 주위에 있으면서도 눈에는 띄이지 않는 존재에 불과했다.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는” 하느님의 태도를 더욱 드러내기 위하여 루가가 사용하는 이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 설화였다. 루가는 단순히 라자로와 부자의 외적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 상을 받고 부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이다!

이 이야기는 성서와 전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실제의 생활에서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 대한 경고인 것이다.

이 이야기는 또한 지주(地主)들은 야훼의 소작인(小作人)이며(레위 25, 23) 야훼의 대리인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음으로서 “소작료(小作料)”를 대신 한다는 히브리인들의 믿음을 보여 준다.

부자가 라자로에 대해 전혀 무관심했던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 자신을 거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죄였다.

부자와 그의 형제들과 우리에게 공통된 결함이 있다: “하느님의 계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동정심의 요청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닫는다”(16, 192).

기도 안내

+ 매일 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2권

+ 구하는 은총 :

죄의 결과를 돌이켜보면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하며, 동시에 나를 지옥 불에서 건져 주시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관상 (26~27쪽)

나는 부자의 역할을 맡는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한 잔치를 벌이는 나의 모습을 그려 본다. 내 주위에 널려 있는 고통에 무관심한 스스로를 바라본다. 또한 지옥에 떨어진 나 자신을 아주 상세하게 상상해 본다. 충격받고 당황한 내 자신이 제발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본다. 나는 이 모든 광경을 눈여겨 보고 거기에서 오고가는 대화들을 귀담아 듣는다.

+ 마침기도 :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간다. 나 자신의 죄스러움과 무관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쭙는다 -“제 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저를 처벌하지 않고 계십니까?”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

이 기도중에 떠오른 모든 내적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기도 안내

+ 매일 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단 한 가지의 죄라도 그 결과를 돌이켜보면서 깊은 후회와 슬픔을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30쪽의 “반복”을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를 위한 준비로 지난 주간(週間)의 영적 일기를 읽음으로써 나의 기도를 반성한다.

내가 깊이 감명 받았던—슬펐던 또는 기뻐했던—날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그때 큰 감명을 준 장면, 말씀, 또는 느낌에 초점을 두면서 전에 했던 그대로 되풀이 한다.

+ 기도 후 반성 :

이 기도중에 떠오른 모든 내적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죄의 결과

에제 16, 1-22; 59-63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온갖 역겨운 짓들을 깨우쳐 주어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네 족보를 캐어 보면 너는 가나안 출신이라, 네 아버지는 아모리 인이요 어미는 헷 여인이다. 네가 나던 일을 말하자면, 네가 세상에 떨어지던 날 탯줄을 잘라 줄 사람도 없었고 목욕시켜 줄 사람도 없었으며 소금으로 문질러 줄 사람도 없었고 포대기에 싸 줄 사람도 없었다. 너를 애처롭게 보아 이런 친절을 베풀어 줄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가엾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에 떨어지던 날, 너는 들에 내버린 개구멍같이 신세였다. 내가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발버둥이치는 너를 보고, 핏덩어리야 살아라, 들풀처럼 자라나거라 하였더니, 너는 자라고 커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너는 젓가슴이 부풀고 거웃도 자랐는데 알몸을 드러내 놓고 있었다. 나는 지나가다가 네가 꽃다운 한창 나이가 된 것을 보고 내겔 옷 자락을 펴서 너의 맨몸을 감싸 주었다. 나는 맹세하고 너와 약혼한 사이가 되었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너는 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너를 목욕시키고 너에게 묻은 피를 닦아 주고 기름을 발라 주었다. 수놓은 옷을 입혀 주고 고래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겨 주고 아마포띠를 띠어 주었으며, 비단 겹옷을 입혀 주었다. 너를 보석으로 단장하고 팔에는 팔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코에는 코고리를, 두 귀에는 귀고리를 달아 주었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족두리를 씌워 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은파물로 단장하고 모시옷에, 비단옷에, 수놓은 옷을 입고 고운 밀가루 음식과 꿀과 기름을 먹게 되었다. 너는 점점 아름다워져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내가 너에게 입혀 준 영화는 한점 티없이 아름다웠으므로 네 명성은 만방에 떨쳤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런데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명성을 미끼로 삼아 몸을 팔았다.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몸을

내맡겨 마구 놀아났다. 네 옷을 가져다가 산당 언덕에 색색으로 퍼 놓고 그 위에서 몸을 팔았다. 몸을 내 맡겨 놀아났다. 또 내가 몸을 장식하라고 준 금은패물을 가져다가 사내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는 몸을 팔았다.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 형상들에 입히고 나에게 바칠 기름과 향을 그들에게 바쳤다. 내가 너에게 준 빵뿐 아니라 너에게 먹으라고 준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살라 그들 앞에서 향기를 피웠다. 주 아훼가 하는 말이다.

또 내가 나에게 남아 준 아들 딸마저 끌어다가 그 형상들에게 제물로 잡아 바쳤다. 네 몸을 파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더냐? 너는 나의 아들들을 잡아 불에 살라 바쳤다. 너는 이렇듯이 보기에든 역겨운 짓들을 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 알몸을 드러내고 피투성이로 발버둥이 치던 일을 잊어 버리고 몸을 팔았다.

주 아훼가 말한다. 너는 너의 맹세를 하찮게 보고 그 계약을 깨뜨렸다. 네가 한 대로 나도 너에게 해주리라. 그러나, 나는 네가 처녀였을 때 너와 약혼했던 것을 생각하고 너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계약을 맺으리라. 너와 맺은 계약에는 들어 있지 않았지만, 네 언니와 아우를 너의 딸로 삼아 주리니, 그리 되거든 네 과거 행실을 생각하고 부끄러운 줄이나 알아라. 내가 이렇게 너와 계약을 맺으면 그제야 너는 내가 아훼임을 알게 되리라. 너는 네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나에게 용서받고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이 되어 다시는 입도 벌리지 못하게 되리라. 주 아훼가 하는 말이다.”

해설:

이 길고도 극적인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선하심에 비추어 본 인간의 죄에 대한 예제키엘의 깊은 슬픔과 증오를 나타낸다. 성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 힘약한 영상들이나 강력한 말들이 처음에는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릴지도 모른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경고이다. 이것은 버려진 어떤 여자 아이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의 형태를 취한다. 이 버려진 여자 아기를 하느님께서 발견하여 잘 키우셨건만 그 아이는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창녀가 되었다.

에제키엘 시대의 민간 설화들이 대체로 버려진 아이들을 영웅화 한데 반하여 에제키엘은 이 버려진 아이의 불충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킨 하느님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었다. “영웅으로서의 버려진 아이”는 언제나 매우 매력적인 이야기 소재(素材)이지만 에제키엘은 죄의 실체와 반역성을 드러내고 분석하는 양면도(兩面刀)로서 이 이야기를 사용한다.

이 이야기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우화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창녀의 생활로 비유된다.

버려진 아이들의 생애의 시작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도 이집트의 광야에서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 속의 아이처럼 하느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엿하고 아름답게 자라났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하느님은 그 젊은 여인을 그의 사람이라고 선언하셨다. 이스라엘 또한 하느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혼인 계약과 같은 것이었다.

창녀가 사랑을 거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연속이었다.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의 왕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였다. 심지어는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악하고 파괴적인 죄의 성격에 압도당하게 된다. 자기영속적(自己永續的)이고 기생적(寄生的)인 죄는 그 소외시키는 힘이 너무도 강력하여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고립시키며 그 결과로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도 소외시킨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역사를 꼼꼼이 돌이켜보는 에제키엘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에제키엘의 주된 목적은 창녀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끼도록 하는데 있다. 에제키엘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그 창녀에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하느님께서 얼마나 그녀에게 성실하셨는지 기억하라고 창녀에게 호소한다.

그녀에 대한 하느님의 크나큰 사랑을 기억함으로써만이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깊이 느끼고 자신의 죄를 크게 슬퍼하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창녀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과 불명예를 느낄 때 비로소 미래에 생명을 주고 감동적이며 깊이 죄를 뉘우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 ……”

(33, p.306)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죄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청한다.

+ 기도 방법 :

이 성서 구절과 해설을 주의 깊게 읽는다. 이 이야기와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서 느끼는 나의 감정 -반감, 근심 등-을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 본다.

아무도 돌봐 주지 않는 버려진 아이같은 나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성서 구절 속의 창녀같이 불충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가?

내 안에서 떠오르는 의문들은 무엇인가?

+ 마침기도 :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와 이야기를 나눈다. 에제키엘서의 구절을 읽으면서 느꼈던 모든 체험들을 그리스도와 나눈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2권

+ 기도 후 반성 :

위의 질문들에 대한 나의 응답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에제 16, 1-22; 59-63

해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읽을 줄 알았던 초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전적으로 자신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구약 성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게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출애 20, 8).

“얼마나 묘한 일들 하셨는지 생각들(기억) 하여라…… 계약을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 ……”(시편 105, 5. 8).

모세 오경이라 불리우는 성서의 첫 다섯 권은 히브리 인들이 기억해 온 초창기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모세 오경에는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범들도 많이 들어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자비를 잊지 말라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법(法, Torah)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역사 안에 면면히 전해 내려오는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을 기억 속에서 상기해야 했다. 그 사건들과 상황들 안에서 야훼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느님의 현존을 찬양해야 했다.

하느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그들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확인하며 그들 가운데 창조하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의 핵심이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너희에게 들려준다. 이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비밀이다. 지

금 비로소 되는 일,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이사 48,6 요한 묵시록 21,5).

기억은 히브리 인들에게 그들의 뿌리와 정체를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는데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한다.

묵상적인 기억은 부서졌던 우리 자신의 재결합 안에서 하느님과 협력하는 것이다. 즉, 죄를 통하여 찢겨져 나가고 소외된 우리들 자신의 파편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모으게 된다.

우리를 지탱해 주고 이끌어 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어느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기억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보다 깊이 느끼게 되며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신비스럽게도 우리 자신을 열게 되어 바로 그 사건의 은총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 다만 이번에는 보다 깊은 차원에서 치유와 재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이 되리라”(에제 16,63).

기도 안내

+ 매일 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죄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청한다.

+ 기도 방법:

나의 생애를 돌이켜본다. 내가 사랑했던 장소, 사건, 활동, 일,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을 기억한다. 이 속에서 넘쳐 흐르는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이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선용 또는 악용했으며 또 거부했는지 회상한다.

하느님의 사랑		나의 거부
	어린 시절 사춘기 20 대 30 대 40 대 50 이후	

이 도표를 영적 일기에 완성해 보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 마침기도 :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나의 생애를 통하여 나를 여여뻔 여기신 그 분께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

이 기도 시간에 인식한 모든 새로운 느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에제 16, 1-22 ; 59-63

해설 :

이 성서 구절을 다시 읽고, 지난 이틀 동안 적었던 모든 영적 일기의 기록을 재점검하십시오.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나의 죄스러움으로 인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전날의 기도로 돌아가 나 자신이 체험한 은총과 죄, 즉 하느님의 사랑과 나의 거부에 대하여 회상한다. 나의 죄의 역사를 살피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떠오르는 특별한 죄에 주의를 집중한다. 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로 이 상황 속으로 들여 보낸다. 그 때의 모든 세밀한 부분 -장소, 사람, 말, 생각, 그리고 느낌들-을 회상한다.

이 죄의 결과를 심사 숙고 해 본다 :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이 죄가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였는가?

이 죄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어떻게 제한하였는가?

내 죄로 인하여 어떤 고통이 초래되었는가? 누구를 울렸는가?

나의 죄가 이 세상의 악을 어떻게 증대시켰고 또 이 세상의 악의 세력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 마침기도 :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나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주님께 말씀드린다.
내가 죄를 범하고 그 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을 때에도 나를 저버리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 기도 후 반성 :

위의 질문들에 대한 나의 응답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Ⅱ 사무 11, 1-21. 27 ; 12, 1. 7-10. 13-25

해가 바뀌는 때가 왕들이 싸움을 일으키는 때였다. 그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부하 장교들과 이스라엘 전군을 맡겨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을 무찌르고 마침내 리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다윗이 사령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 보게 하니, 사령은 돌아와서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 바세바인데 남편은 헷 사람 우리아라고 보고하였다. 다윗은 사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다가 정을 통하고는 돌려 보냈다. 여인은 마침 부정을 씻고 몸이 정결한 때였다. 바세바의 몸에 태기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헷 사람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당도하자 다윗은 요압과 병사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알아 보고 나서 집에 돌아가 폭 쉬라고 하였다.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나올 때 왕은 술상까지 깔려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대궐 문간에서 근위병들과 함께 잤다.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 자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아에게 물었다. “그대는 먼 길에서 돌아온 몸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집에 내려가 보지 않았는가?”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온 이스라엘군과 유다군이 아영 중입니다. 법궐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상관 요압 장군이나 임금님의 부하들도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집에 가서 편히 쉬며 먹고 마시고 아내와 더불어 밤을 지내다니,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

은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오” 하며 우리아에게 내일은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우리아는 그 날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여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여 그를 흠뻑 취하게 만들었다.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어전에서 물러나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근위병들과 함께 잤다.

날이 밝자 다윗은 요압 앞으로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주어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앞세워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를 맞아 죽게 하여라.” 요압은 성을 지켜 보고 있다가 강병이 지키고 있는 데를 알아 내어 그 곳으로 우리아를 보냈다. 그러자 그 성에서 적군이 나와 요압의 군대를 쳤다. 다윗의 부하들은 쓰러지고 헛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다윗에게 전황을 보고할 전령을 보내면서 이렇게 지시하였다. “이번 싸움의 보고를 드리면, 왕께서 화를 내시며 ‘어찌자고 그렇게까지 성에 가까이 쳐들어 갔었느냐? 성벽에서 화살이 날아 올 줄도 몰랐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누구의 손에 죽었느냐? 데베스 성벽 위에서 어느 하잘것없는 한 계집이 내려 던진 맷돌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성벽 가까이 갔었느냐?’하고 꾸짖으실 것이다. 그때 너는 왕의 부하 헛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아뢰어라.”

곡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 다윗은 예를 갖추어 그 여인을 궁으로 맞아 들여 아내로 삼았는데, 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다윗이 한 이 일이 아훼의 눈에 거슬렸다.

아훼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아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울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나는 네 상전의 딸과 아내들까지 네 품에 안겨 주었다. 나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딸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자란다면 어떤 여자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알보며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했느냐? 너는 헛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암몬군의 칼을 빌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다. 네가 이렇게 나를
알보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니, 너의 집안에는 칼부림 가실 날
이 없으리라.'

"내가 아훼께 죄를 지었소."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자 나단이 말하였다. "아훼께서
분명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님께서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
러나 임금님께서 아훼를 알아보셨으니, 우리아의 아내가 낳게 될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이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 준 아이에게 중병을 내리셨다. 다윗은 식음을 전폐
하고 베옷을 걸친 채 밤을 새우며 어린것을 살려 달라고 맨땅에 엎드려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늙은 신하들이 둘러 서서 일어나라고 했으나, 그는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더불어 음식을 입에
대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기는 마침내 칠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다윗에게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아기가 살아 있을 때에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면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다
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는 아이가 죽었음을 알아채고 아기가 죽었느냐고 물었다.
신하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윗은 땅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고 아훼의 전에 들어가 예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음식을
차려 오게 하여 먹기 시작하였다. 신하들이 물었다. "아기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잡수시지도 않
고 아기 생각만 하며 우시더니, 막상 아기가 돌아 가시자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어찌 된
일이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그 애가 살아 있을 때 굶으며 운 것은 행여 아훼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기를 살려 주실까 해서였소. 아기가 이미 죽고 있는데 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가 굶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겠소? 내가 그 애한테 갈 수는 있지만, 그 애가
나한테 돌아올 수는 없지 않소?"

다윗이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바세바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솔로몬이
라 하였다. 아훼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아훼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시어 당신이 사랑하

는 아이라 하여 여디다이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해설 :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다윗 왕의 죄를 꾸짖을 때 그가 가졌던 부릅 뜬 눈, 우렁찬 목소리, 그리고 왕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이 성서 구절의 핵심적인 영상이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다윗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 왕이 바로 예술가적이고 매력적이며, 시인이요 음악가이며 전쟁 영웅인 다윗이었다. 다윗은 누구든지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상적(理想的)인 사람이었다. 그의 생애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하느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하느님은 그를 승리에서 승리로 이끄셨다.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은 두 개의 왕관을 쓰고 있었다. 역동적인 개성의 강력한 힘으로 다윗은 두 절망적인 지역을 한 나라로 융합시켰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였다. 그는 사실상 “예루살렘의 총아”였다.

여기에 하느님은 다윗에게 또 다른, 더욱 영구적인 축복을 주셨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희망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루어지리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다(Ⅱ사무 7, 13).

다윗은 또한 모범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생애의 전반(前半)에서는 다윗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 사건들 속에 펼쳐지는 하느님의 계획에 충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지었다. 그가 성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생애의 가장 유망한 시기에 다윗은 불충하였다. 다윗 왕조차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역대기 상권이 이상적인 다윗의 모습을 전하는 반면에 사무엘 하권의 저자는 다윗의 모순, 즉 밝은 면뿐 아니라 그늘진 면을 보여 준다.

나단과 다윗의 대면은 다윗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즉 죄를 직면해야 하는 순간을 나타낸다. 나단의 말은 다윗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을 꿰뚫고 들어갔다.

나단은 다윗이 바세바와 정을 통한 성적(性的)인 중죄(重罪)에 대한 것만을 꾸짖은 것이 아니다.

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뒤를 이어 다른 죄들을 저지르게 한 보다 깊은 죄의 본성을 꾸짖은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냉철한 계획을 세워 사람들과 상황을 통제하고 조작하였다.

자신의 죄에 직면한 다윗은 울었다. 그는 가면을 벗었다. 신중하게 세웠던 자기 방어 체제가 무너져 버렸다.

가난한 자의 보호자요 정의의 중재인이었던 그가 스스로 가난한 자에게서 흠치고 정의와 자비의 법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왕이었던 그가 그 자신의 내면의 가난과 약함을 체험하였다. 다윗은 악의 세력에 그가 공헌했다는 뼈아픈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각성의 순간이 다윗에게는 바로 고백과 회개의 순간이 되었다.

다윗은 부르짖었다: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내적 가난의 체험은 곧 하느님께 의지하는 발판이 되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받아들였을 때 다윗은 보다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다.

하느님께 굴복한 그 순간에 그는 울음을 그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의 그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였다. 그가 굴복한 그 순간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충실하며 보다 진실한 하느님의 축복이었던 적이 없었다.

이 예언자의 도전이 다윗에게는 생명에로의 부름이었다.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나의 죄스러움으로 인한 깊은 슬픔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관상 (26~27쪽)

다윗과 나단의 대결 장면을 상세하게 관상한다. 나는 다윗의 역할을 맡는다. 나를 지적하는 나단의 손가락을 느낀다. 나를 꾸짖는 그의 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 자신의 죄스러움을 각성함에 따라 내 생애의 죄의 무게가 내 존재의 전체에 느껴지도록 한다.

+ 마침기도 :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나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주님께 말씀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

나단의 비난을 들으면서 느낀 감정들을 영책 일기에 적는다.

시편 130

아뢰여, 깊은 구렁 속에서 당신을 부르오니,
주여, 이 부르는 소리 들어주소서.
애원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들으소서.

아뢰여, 당신께서 사람의 죄를 살피신다면,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는 아뢰님 믿고 또 믿어
나의 희망 그 말씀에 있사오니,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웁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이스라엘이 아뢰를 기다리웁니다

인자하심이 아뢰께 있고
풍요로운 속량이 그에게 있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리라.
그 모든 죄에서 구하시리라.

해설:

“깊은 구렁 속에서 -de profundis- 주여, 당신을 부릅니다.”

시편 130장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어느 개인이 자비와 구원을 바라는 깊은 울부짖음을 나타낸다. 그는 자신이 모든 사랑과 삶의 의미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떨어져 나왔다고 느낀다. 그는 문자 그대로 하느님께 자기 말을 들어 달라고 간청한다.

우리 중 어느 누군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똑같은 울부짖음을 터뜨렸던 순간이나 밤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울부짖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어느 경우라도 우리를 치절한 아픔과 고통의 심연으로 빠뜨릴 것이다.

이 시편 저자가 울부짖는 이 체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느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된 데서 오는 고뇌의 소리이다.

이 시편 저자는 그의 고뇌가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이 “깊은 구렁”은 쇼울(Sheol)에 떨어진, 즉 사후(死後)에 깊고 깊은 어둠 속에 떨어진 자들이 겪는 상실(喪失)의 아픔을 나타내는데도 모른다.

이 깊은 구렁은 또한 혼돈의 바다를 상징할 수도 있다. 히브리 인들에게 바다는 죽음뿐 아니라 탄생과 새로운 창조를 상징한다(창세 1, 2).

비록 그의 고통은 극에 달했지만 시편 저자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그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시인하는 저자의 소리를 듣는다. 그는 아무도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느님의 용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죄에 물들어 있어 하느님의 순수한 자비의 은총만이 사람을 비극의 구렁텅이로부터 건져낼 수 있음을 이 시편 저자는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이 희망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이 시편 저자는 하느님의 용서를 믿을 뿐 아니라 하느님의 용서와 함께 “두번째 은총”이 따라옴을 알고 있다.

용서가 있는 곳에 마음의 변화가 따르며 거기에 경외가 따른다.

우리말 “경외(敬畏)”는 원래의 히브리 말이 가진 모든 의미를 다 나타내지 못한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경외”의 본래의 의미는 메타노이아(metanoia), 즉 마음의 완전한 변화 안에서 일어날 종교적 체험의 충만함을 내포한다.

이 경외는 두려움의 차원을 포함한다. 이 두려움은 절박한 위험을 눈앞에 두고 겁에 질려 도망가고자 하는 두려움과는 다르다. 경외는 우리가 강하게 이끌리면서도 너무나도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진실된 반응이란 오로지 찬미일 수밖에 없는 분이 불러 일으키는 감탄이나 놀라움의 느낌과 유사한 두려움이다.

용서에 의해 생기는 두려움은 하느님의 새로운 계시를 보여 주는 사자(使者)이다. 이 계시로 인하여 통회하는 죄인이 전혀 새로운 눈으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사막에서 방황하던 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한 것이 바로 하느님을 새로이 바라보고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이 “새로운 방법”의 한 예이다. 십계명이 적힌 판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 모세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느님과 모세는 그 죄에 대하여 대단히 격노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용서를 청하였다.

용서하시는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더욱더 그분 자신을 보여 주셨다. 모세는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야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외치셨다. “나는 야훼다. 야훼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신,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신이다.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상이 거스르는 죄를 아들 손자들을 거쳐 삼사 대까지 벌한다”(출애 34,6-7).

용서받는 것은 하느님을 뵈는 것이며 경외, 사랑의 감사, 그리고 신뢰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느님께 대한 흠숭(欽崇)이다.

이 시편에서 죄인은 하느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을 알고 하느님의 용서의 충만함을 기다린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도 같이 기다리자고 권고한다.

저자와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밤의 어둠을 겪고 있다. 우리들의 체험 속에서 우리들 자신이 긴긴 밤에 여명의 첫 밝음이 어둠을 뚫고 빨리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였는지를 기억해 보라. 시편 저자는 더 나아가 하느님의 용서의 여명을 기다린다. 이 용서로 인하여 그와 그의 공동체가 새로운, 그리고 쇄신된 시각 속에서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다.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나의 죄에 대하여 더 크고 강렬한 슬픔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눈물까지도 흘릴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나 자신의 죄스러움의 깊은 구렁으로부터 이 시편을 기도하면서 다음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

- 나의 죄가 어떻게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시켰고, 어떻게 나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하였으며, 어떻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의도하신 고유한 사람이 될 수 없도록 방해물이 되었는가?
- 어떻게 하여 성인들은 그들의 신중한 선택을 통하여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반면에, 어떻게 하여 나는 나의 고의적인 죄스러운 선택으로 나 자신을 파괴시키고 영적으로 마비시켰는가?

- 나의 창조주 하느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도록,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조화를 이루어 다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내가 어떻게 나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선택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나 자신을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로부터 소외시켰는가?
- 어떻게 나의 육체적, 지적 한계나 나약함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임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가?
- 나의 죄스러움으로 인하여 나는 얼마나 이 세상의 악의 세력에 기여했는가?

+ 마침기도 :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께 다가가 나의 마음과 가슴으로 느낀 모든 것을 말씀드린다.

+ 기도 후 반성 :

점점 커지는 나의 죄스러움에 대한 슬픈 느낌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둘째 주, 여섯째 날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다.

욥기 42, 1-6

욥이 아훼께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운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지껄었습니다.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해설 :

욥은 욥이요,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욥은 마침내 행복하였으며 기쁨을 찾았다.

욥은 욥이요,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다.

이 간단한 명언(命言)은 1-6 절뿐 아니라 욥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다.

위의 구절은 길고도 고통스러운 욥의 신앙 여정(旅程)의 정점이요 욥의 번뇌가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욥은 매우 신심이 깊은 사람으로서 세도가 있고 성공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이 있었고 큰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사탄은 욥의 신앙에 의혹을 던짐으로써 하느님께 도전하였다. 사탄은 만약에 욥이 그의 가족과 부와 권세를 잃으면 그의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가정하고 하느님께 내기를 걸었다.

하느님께서서는 욥의 신앙을 시험하는 데 동의하셨다.

서서히 욥은 그의 가족과 재산 그리고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

겹치는 불운에 당혹한 욥은 처음에는 그로 하여금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하느님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번민에 빠졌다.

“왜 내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질문들에서부터 차츰 하느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보다 깊은 질문들로 바뀌어져 갔다.

하느님의 정의(공평함)는 어디에 있는가? 어쩌서 사악한 자는 번성하는 반면에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가?

이러한 인간적인 혼란과 갈등이 욥을 의식의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렸다. 그의 내부에서 체험한 불가사의와 모순들은 그의 이해를 초월하는 우주적 문제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욥이 혼란 중에 있을 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서는 한마디로 “너는 도대체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

하느님의 답변은 자기 방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순에 대한, 즉 욥의 절박하고도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해결도 아니었다. 해답이 없는 것 같은 질문들을 욥에게 되물으시면서 하느님께서서는 욥이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이끄셨다.

하느님의 질문들은 창조 속에 계시된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위대함을 지적하였다.

하느님의 위대함에 놀라고 압도된 욥은 마침내 행복하였다.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하느님에 대한 이전의 그의 지식은 하느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극복되었다. 놀라움 속에서 욥은 하느님께 대해 그가 갖고 있던 어쭙잖은 가정(假定)들을 쉽게 버릴 수 있었다. 욥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힘과 인격에 의존하지 않게 되자 그의 두려움은 사라졌다. 새로운 확신 속에서 욥은 그의 인간적인 한계를 받아들였다.

하느님의 지혜 앞에서 그의 지혜는 무지(無知)임을, 하느님의 권능 앞에서 그의 권능은 미약함을, 하느님의 정의 앞에서 그의 정의는 불공평임을,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사랑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었음을 욥은 인정하였다.

욥은 세상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을 하느님으로서 받아들였다.

욥은 욥이요,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다.

기도 안내

+ 매일 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나의 죄에 대하여 더 크고 강렬한 슬픔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눈물까지도 흘릴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묵상 (25~26쪽)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성서 구절을 다시 읽는다. 욥의 행복하는 말들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공명(共鳴)하도록 한다.

나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와 죄스러움에 비추어 이 성서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느님과 나 사이의 엄청난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예를 들면 :

하느님의 지혜	모든 해답을 가져야 하는 나의 필요성..... 나의 지식, 학위 또는 다른 것들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부족한 나의 지혜를 보상하려는 나의 끊임없는 허덕임
하느님의 정의	나의 자기 정당성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맹목적인 억압다른 사람들의 불공평을 혹독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위선적인 나의 행동 양식들
하느님의 권세	나에게 주어진 권위와 영향력의 악용과 타락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조작하고 통제하려는 나의 노력특권을 향한 나의 갈증
하느님의 사랑	나의 시기심과 혐의에 가득 찬 신뢰의 부족..... “조건이 달린” 기부..... 나의 가혹하고 보잘것없는 말과 행동.

+ 마침기도 :

십자가 상의 예수께 다가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열망들을 털어놓고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말씀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

하느님과 나의 현저한 차이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얻어진 깨달음과 느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예제 36, 25-29

정화수를 끼얹어 너희의 모든 부정을 깨끗이 씻어 주리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중에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 주고 새 마음을 넣어 주며 새 기운을 불어 넣어 주리라.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 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리라. 나의 기운을 너희 속에 넣어 주리니, 그리 되면 너희는 내가 세워준 규정을 따라 살 수 있고 나에게서 받은 법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면서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더러운 짓을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이 된 너희를 나는 건져 내겠다. 내가 곡식을 불러 오리니, 풍년이 들어 다시는 굶주리는 일이 없으리라.

해설:

야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깨끗이 씻어 주리라;

내가 너희 위에 물을 끼얹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 주리라;

네 마음속에 있는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 내리라;

나의 정신을 너희에게 넣어 주리라.

에제키엘은 이 성서 구절에서 야훼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킴으로써 당신이 돌보시는 마음을 갖고 있고, 구원의 힘을 가진, 동정심에 가득 찬 유일신임을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실 결의를 갖고 계심을 보여 준다. 이는 하느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또

그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야훼 하느님께서서는 유배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생애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타국 땅에 있었다. 그들의 땅만 외세에 의해 점령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과 사업도 빼앗겼다. 그들이 강제로 빼앗긴 집과 사업들은 외국의 지배자가 그들의 땅에 이주시킨 낯선 사람들에게 넘겨졌다.

조국을 잃고 정치적인 세력을 잃은 것도 슬펐지만, 유배지의 백성에게 가장 큰 슬픔은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었던 그들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졌다는 사실이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야훼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땅에 계시며, 특별히 성전 안에 거주하신다고 믿고 살아왔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교도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의 주체성과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관습적, 문화적 기반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 처절한 유배 생활은 그들이 하느님께 불충했고 하느님과 맺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의 끝장이라고 여겨진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그들과 함께 유배지에 끌려 온 사제 예제키엘의 지도 아래 그들의 유배 경험은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는 모체가 되었다(예제 1, 4-28).

예제키엘은 유배 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경전 두루마리들을 가지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제키엘의 지도 아래 성서의 이야기들을 회상하고 그들이 처한 역동적(力動的)인 삶과 죽음의 상황을 신앙 안에서 재조명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깊은 성찰을 통하여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발견하였다:

-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우리들의 야훼 하느님께서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自覺)이 가져온 깊은 아픔을 아로새기는 가운데 하느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자유로워졌다.

야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약속을 주시는 그들의 하느님, 즉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의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을 붙여 넣어 주리라.”

유배중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느님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같은 하느님이시다. 그 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그 분의 백성이라는 그 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유배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도 실향의 체험이 있다. 이 체험은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 있으며 우리 시대의 노래와 이야기 속에 묘사되어 있다.

영화 이티(E.T.)에서 본 이티의 부드러운 손가락 안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갈망하는 그의 연민 안에, 이 체험은 예리하게 표출되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E.T의 모습 안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고향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인류 상호간에, 우리가 사는 지구와, 그리고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는 보다 완전한 차원을 나타낸다.

인간은 조화(調和)를 지향(志向)하는 존재이다. 이 지향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도 발견되며 한 인간의 육체 안에서도 발견된다.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이 이 지향을 거역할 때 우리는 근본적인 실향 및 소외의 유배를 체험한다.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하고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안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히브리 인들에게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생각과 결정의 중심이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가치를 추구하고, 마음으로 선택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세계가 조화를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끄신다. 하느님의 능동적인 뜻에 복종할 때 사람의 마음은 하느님의 거룩한 새로운 성전이 된다.

유배지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새 창조는 우리가 기꺼이 생명을 선택하는 데, 즉 역사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과제를 ‘아멘’하고 수행하는 데 달려 있다” (53, p. 394).

기도 안내

+ 매일 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나의 죄에 대하여 더 크고 강렬한 슬픔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눈물까지도 흘릴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에제키엘서의 구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는다. 그리고 마음을 든든케 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듬뿍 스며들게 한다.

나의 죄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님께서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떠받쳐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한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의 쇠신을 계속하실 것인지 생각해 본다 :

- 지구의 아름다움과 생명 체계-공기, 물, 흙-를 통하여 매우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의 향유(享有)와 사용(使用)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 -가족, 친구, 성인들-의 선함, 사랑,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놀라움을 가지고 다음의 모순에 대해 고려한다: 그렇게 여러모로 많은 죄를 지은 불충한 죄인인 내가 동시에 그렇게 많은 선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점.

+ 마침기도: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마음속으로부터 담화를 한다. 나에 대한 그분의 크신 자비에 감사드린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시편 51

하느님, 선한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분이여, 내 죄를 없애 주소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잘못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이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천 번 만 번 용사옵니다.
이 몸은 죄중에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니
지혜의 심오함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정화수를 나에게 뿌리소서, 이 몸이 깨끗해지리이다.
나를 씻어 주소서,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소서.
꺾여진 내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당신의 눈을 나의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 주시고

뜻깊은 뜻을 새로 세워 주소서.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도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굳혀 주소서.

죄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빛나갔던 자들이 당신께로 되돌아 오리이다.

하느님, 내 구원의 하느님,

죽음의 형벌에서 이 몸을 건져 주소서.

이 혀로 당신의 정의를 높이 찬양하리이다.

나의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이 입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당신은 제물을 즐기지 아니하시며,

번제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느님, 내 제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알아보지 아니하시니,

어지신 마음으로 시온을 돌보시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소서.

그 때에는 번제와 제물을 올바른 제사로 기뻐 받으시리니,

송이지를 잡아 당신 제단에 바치리이다.

해설 :

이 시편은 자신의 죄스러움의 혹독한 현실을 체험한 사람이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울부짖는 기도이다.

자신의 죄가 가져온 여러 가지 슬픈 결과에 대해 회개한 사람의 예리하게 동강난 마음들이 이 시편 구절 속에 표현되어 있다. 이 안에 영적인 치유와 용서의 필요성, 그리고 그에 대한 절실한 갈망이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미세레레(Miserere, 哀願)라고 알려진 시편 51장은 일곱 개의 통회의 시편 가운데 네번째 것이다. 이 시편은 여러 세기 동안 교회의 통회의 예식들 안에 사용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이 시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죄를 지은 뒤 용서를 간청하는 기도 또는 애가(哀歌)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세에 지금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유배시대의 예언자인 예레미야와 에제키엘의 지혜와 희망을 아름답게 전해 주고 있다.

이 시편에 나타난 갈망의 이미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20세기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그것은 자아의 육체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 차원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대인의 경향(傾向)을 표현한다.

이 시편은 죄의 절망에서 용서의 기쁨으로, 분열에서 일치로 전환하는 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어 왔다.

이 시편은 자비와 용서를 비는 영상이 담긴 간청으로 시작한다.

번역의 과정에서 이 시편 구절은 그 영향력을 일부 상실한다. 히브리 말로 된 시편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특별한 죄들을 고백한다; 의식적인 반항(“죄”로 번역), 잘못을 범하는 죄(“허물”로 번역), “길을 잘못 든다”는 의미의 죄 (“잘못”으로 번역)가 그것이다.

시편 저자는 세 가지의 씻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 세 가지 죄의 영역에 나란히 세가

지의 용서를 청한다. 그는 반항의 죄는 “뉘아서 없애 주시고,” 잘못을 범하는 죄는 “말끔히 씻어 주시고,” 길을 잘못 드는 죄는 “깨끗이 없애 주시라고” 기도한다.

이 이미지들도 번역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그 빛을 잃는다. “깨끗이 하는 것”과 “뉘아 없애는 것”은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과 용서 또는 무죄를 선언하는 예절을 말한다. “말끔히 씻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이스라엘 아낙들이 찬물에 돌로 옷을 두드리며 빨래할 때 하는 것과 같이 힘들여 비비는 행위를 암시한다(68, p.258). 이 시편 저자는 마음속을 깨끗이 씻어 달라는 진실한 열망을 분명하게 전달해 준다.

3절과 4절은 하느님께서 사랑이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철저히 보살피시는 분이라고 묘사한 출애굽 34장 6-7절의 아름다운 구절들을 반향한다.

하느님께서 자비를 구하는 간청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느님께서 진실하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결과인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이끄신다.

이 죄인은 태어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밝히는 5절은 성도덕(性道德)에 대한 해설도 아니고 원죄론을 암시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반향과 실수와 부당함의 경향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니 지혜의 심오함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 6절과 5절의 연결은 다른 번역을 보면 분명해진다: “과연 당신은 부부의 친밀한 정절을 기뻐하십니까; 이 은밀한 행위 안에 당신은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까”(68, p.259).

부부의 친밀한 결합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듯이, 죄인이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받아들일 때 그 죄인의 마음 안에 영적 쇄신이라는 새로운 탄생이 잉태된다.

이 시편의 나머지 부분에서 용서와 쇄신을 비는 청원이 계속된다. 그 안에 신뢰와 기쁨의 기대가 가득 스며들어 있다.

이 시편 저자는 이 죄스러움에 너무도 경악한 나머지 다시 죄를 짓는다는 생각마저도 영원히 씻어 버리려고 한다.

그는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히썩을 뿌리는 것으로 상징되는 치유의 은혜를 청한다. 히썩은 정결예식에서 흔히 쓰이던 의약용 향료를 만드는 약초이다. 이 치유로 인하여 시편 저자는 그가 그의 몸 안에서조차 견딜 수 없는 중압감을 느끼는 마음의 고뇌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내 제물은 찢어진 마음뿐.....”

슬픔으로 찢기어 터진, 그러면서도 굳은 결심이 선 마음 안에서만이 진정한 치유와 기쁨이 잉태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성숙과 결심 없이는 모든 종교적 예식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 주시고.”

시편 51장은 그 전체가 완전성을 향한 울부짖음이며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다. “새로 지어 주시고”라는 말은 창세기의 첫 창조 설화에 사용된 말과 같은 말이다. 우주 창조의 원동력이었던 에너지가 바로, 통회하고 치유된 마음 안에 존재하는 새 생명을 주는 힘인 것이다.

이 “새 탄생” 안에서 자아의 완성이 실현되고 연민의 하느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리고 새 탄생에 대한 찬미의 표현은 말과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나의 모든 죄를 뉘우치는 강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묵상 (25~26쪽)

가능하면 큰소리로, 마치 이 시편이 나 자신의 말인 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다.
이 시편 저자의 말을 통하여 나 자신의 마음속의 갈망을 표현하도록 한다. 가장 깊게
와 닿는 구절에서 잠시 머문다.

+ 마침기도 :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께 다가가 치유와 평화를 간절히 구하는 나의 마음을 말씀드린
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

나 자신의 갈망을 가장 깊게 표현한 시편 구절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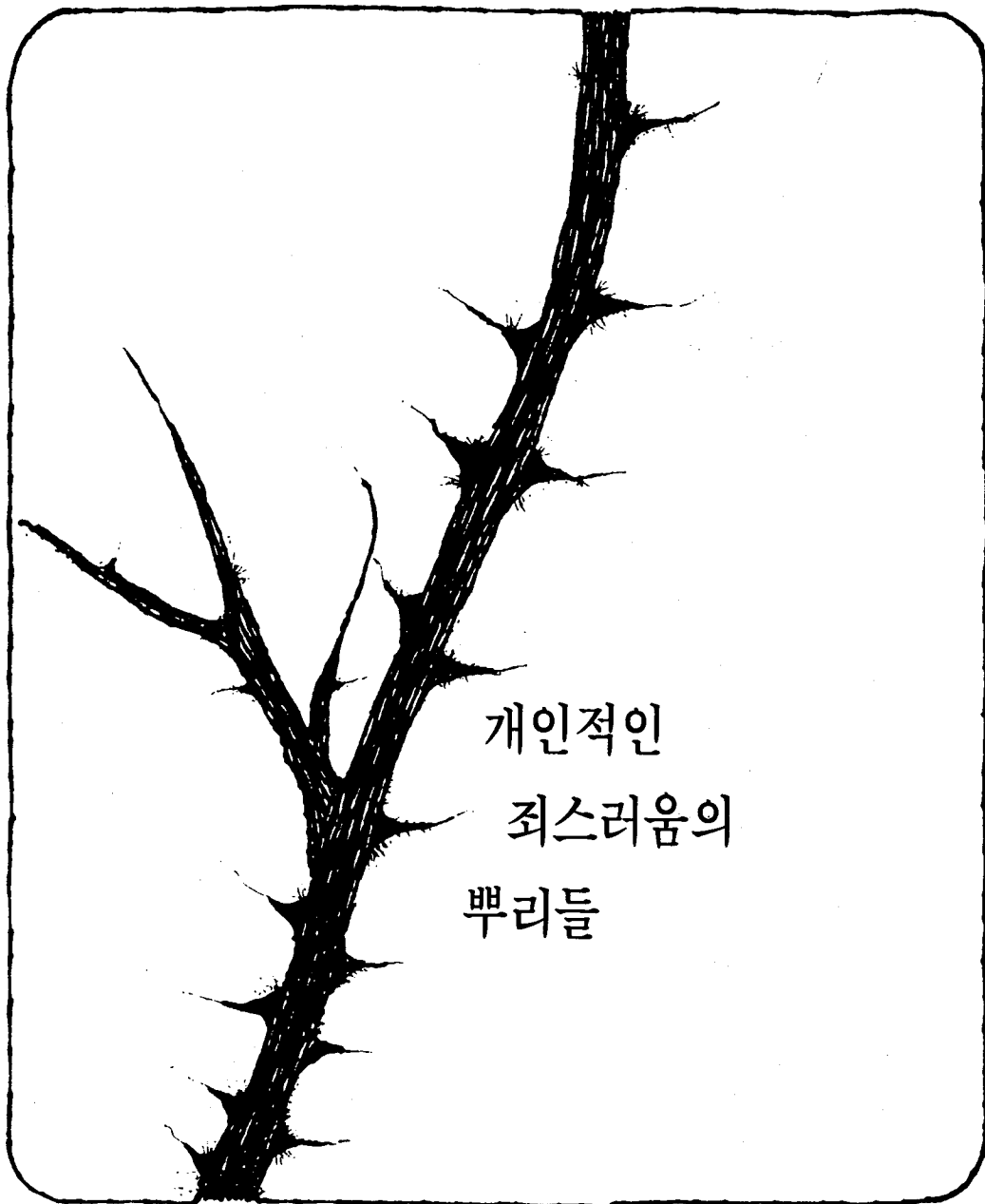
+ 구하는 은총 : 나의 죄에 대하여 더 크고 강렬한 슬픔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눈물까지도 흘릴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30쪽의 “반복”을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를 위한 준비로 지난 번 반복 이후의 영적 일기를 읽으면서 나의 그 동안의 기도를 반성한다. 내가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던 날의 기도나 가장 무미건조함을 느꼈던 날, 즉 가장 느낌이 적었던 날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그때 했던 그대로 되풀이 한다. 그 선택된 성서 구절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연다.

+ 기도 후 반성 :

이 “두번째 듣는” 시간을 통하여 느꼈던 모든 내적 감정,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개인적인
죄스러움의
뿌리들

마태 25, 31-46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앞에 불러 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 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잡게 할 것이다. 그 때에 그 임금의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접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 들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든 것을 보고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또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셨으며, 또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

히셨기에 저희가 모른 채하고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임금은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하고 말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쫓겨 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해설:

이 성서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북서부 미네소타 주의 어떤 여인을 연상케 한다.

어렸을 때 이 여인은 가난하였다. 집은 아주 허술하였고 자주 끼니를 걸렀다. 어린 나이에 이미 그녀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하였다.

바로 이 결심이 그 여인의 전 생애에 영향을 주었고 그 여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 여인은 매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한다. 이 여인과, 그녀와 뜻을 같이하여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려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 그리고 머물 곳을 제공하며 또한 희망을 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이 성서 구절의 핵심이다. 이 결심에 우리의 최후의 심판이 내려진다. 사랑의 결심에 “예”하는 우리의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완성시키는 데 “예”하는 응답이 된다.

이 성서 구절은 예수님께서 수난받기 바로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가르침 중의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은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작별의 말씀에서도 발견되는 주제이다(요한 13장 이후).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명령은 보편성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은 “모든 나라,” 즉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의 범위와 적용은 또한 시대를 초

월한다.

우리 각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매일 직면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여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특별한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렇다. 그러나 이 성서 구절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본다면 우리의 삶도 또한 특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결혼 서약, 부모로서의 책임, 그리고 직업상의 의무 이 모든 것은 다 특별한 것이다! 이 각각의 서약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약속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매일 접하게 된다. 그들의 “가난,” 즉 그들의 상처와 한계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가난은 덜 극적일지는 모르나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돌봐 주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평범한 것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신다; 그것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고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사랑이며 또한 마음에서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다.

이 성서 구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응답하는 것은 곧 그 분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분이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가상(假想)하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앞에 현존하시는 그 분께 응답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하나라고 확인하심으로써 가장 깊은 의미에서 그 분은 그들의 고통 속에 현존하시며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수혜자이다.

이 계시야말로 그의 첫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우 놀라운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현존하시고 또 봉사를 받으신다는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계시이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높이 올려지고 영광을 받지만 - 사람의 아들 - 그 영광과

올리움은 가난한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신 분의 것이라는 것이 역설적이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수만 있다면, 또한 이 말씀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동화된다면, 이 세상은 거꾸로 뒤집힐 것이다! 이 말씀은 자기 성취와 성공을 중요시 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 체계에 도전한다.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데 -자기 도취- 사로잡혀 있다. 이 선입관 때문에 우리는 완전성을 잃으며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격리된, 우리 자신이 만든 지옥 속으로 우리 자신을 빠뜨린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것이 놀라운 것이라면, 우리 각자의 완전성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선택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더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운명,” 즉 우리의 주변 환경을 구실로 삼았다. 굳어진 생활 양식 속에 우리 자신이 파묻혀지고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러한 핑계는 용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왼편으로 갈라 놓은 사람들의 핑계를 듣지 않으셨다. 그 분은 우리의 핑계도 또한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약한 그대로, 한계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버리고 그 분의 사랑과 창조적인 은총에 우리를 맡겨 버리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 용기는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 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비록 어떤 고통이나 한계에 부딪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를 미리 설정해서도 안 된다.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결정이나 죄스러운 반응들은 핑계가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도 안 된다.

과거가 우리들의 운명을 예정(豫定)한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假定)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고의(故意)로 파괴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난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이 자유를 거부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죄이다!

이 성서 구절은 우리 하나하나의 그리스도 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의 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라는, 즉 사랑을 선택하라는 의무를 부여한다. 오로지 사랑을 선택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에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나의 죄스러움의 뿌리를 깊이 깨닫고 더 큰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상상 안에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한다.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나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알아 본다……내가 만나는 사람들 ; 배우자,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내가 평소에 어떻게 그들과 상대하는지 나의 태도를 알아 본다. 그리고 사랑의 결핍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어떻게 이에 응답하였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깊이 의식하고 도와 준 의인들 중의 하나로서 그 분의 오른편에 섰는가? 아니면 왼편으로 몰린 사람들 가운데 있는가? 어떻게 하여 나는 그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참사랑을 주지 못하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지 못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사랑으로 불리움을 받고 있는가?

어떤 생각들이 나의 주의를 사로잡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가?

+ 마침기도 : 세 가지 담화로서 기도를 마친다.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인 성모 마리아에게 다가간다. 예수님의 어머님으로서 성모 마리아는 성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나 자신의 말로 성모 마리아에게 다음의 은총을 빌어 달라고 청한다 :

- 나의 죄스러움에 대한 깊은 자각과 죄를 싫어하는 마음 ;
- 내 생활의 무질서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님의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지혜 ;
- 마음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모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나를 그 분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모든 것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용기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같은 은총을 청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향하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 주신 그 분께도 같은 은총을 나에게 선물로 내려 주실 것을 간청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에 떠오른 모든 내적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로마 7, 14-25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 자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서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지만 내 몸 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 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 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해설:

“왜 내가 그 짓을 했을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버렸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 각자는 사도 바울로가 겪은 제킬과 하이드의 낭패 - 하고자 했던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 를 공감할 수 있다. 바울로에게서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곤경은 즐거운 것이 못 된다.

사도 바울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참 자신을 거슬러 행동하는 “불안한” 기운을 우리 안에서 느낀다. 이것은 우리 안에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우리 자신이다.

태초부터 우리 인간은 선과 악 사이의 갈등과 싸워 왔다. 이러한 갈등은 신비로서 종교가 해답을 구하려 했고 철학자들이 숙고했던 질문이며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들의 주제였다.

우리는 모든 시대의 신화, 희곡, 서사시 및 소설 안에 나오는 이러한 선악의 갈등 속에 빠진 자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확인한다. 이들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 갈등의 미묘한 심리와 잠재적인 비극을 셰익스피어만큼 장인(匠人)의 솜씨로 멋드러지게 묘사한 시인(詩人)은 또 없을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오셀로에서, 아름다운 데스테모나의 순수한 믿음과 음모를 꾸미는 그의 부하 이야고의 교활한 사악함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 인간을 보여 준다.

오셀로는 데스테모나의 성실성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이야고의 교묘한 함정에 스스로 말려 들어간다.

오셀로는 마침내 굴복하고 만다. 그녀가 죽음으로써 이 지구상에서 하나의 악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셀로는 데스테모나의 목을 조른다. 이미 때가 늦어서야 그는 그를 조건없이 사랑했던 한 여인을 살해하였음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내부에 있던 악을 인정하고 고뇌 속에서 울부짖는다:

…… 유황 속에 나를 집어넣고 끓여다오!

기름 불의 날름거리는 불길로 나를 목욕시켜다오!

오! 데스테모나! 오! 데스테모나! 죽다니!

오! 오! 오!

(오셀로, 5막 2장)

최근의 영화 ‘별들의 전쟁(Star Wars)’에서 선과 악의 세력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최신의 발달된 특수 효과 기술을 이용하여 영화 감독 스피버그는 선과 악의 대조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영상처리하였다. 선은 강력한 힘을 가진 반투명한 빛으로 묘사하였고 악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접근할 수 없는 어두움으로 묘사하였다.

이 드라마는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펼쳐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 제2의 자아(自我)를 갖고 있다. 현대의 심리학은 이 제2의 자아(自我)를 크게 강조하며 당당히 그에 맞서도록 권고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부정적인 측면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면 우리는 그만큼 더 그것에 대한 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셀로에서 잘 나타난다.

바울로처럼 우리도 “누가 과연 나를 구해줄 것인가?”하고 질문한다.

우리는 마치 율법이 안전과 정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믿는 근본주의자들처럼 율법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항상 받는다. 이론상으로는 이성(理性)과 지혜로 옳다고 판단된 것들만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지만 그 율법 자체가 목적으로 간주될 때 율법은 사실상 우리를 절름발이로 만들고 엷매이게 한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한 사물(事物)이 아니라 한 인격(人格)이다.

이 인격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며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게 위안을 주는 놀라운 일이다. 그 분의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안에 사시며 우리의 자유와 희망의 원천이시라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신비이다.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사도 17, 28).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나의 죄스러움의 뿌리를 깊이 깨닫고 더 큰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로마서 7, 14-25 를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바울로 사도의 고백 속으로 나 자신을 몰입시킨다. 성서 구절의 말 마디마디가 내 의식(意識) 속 깊이 파고 들어가도록 하며 그것들이 나 자신의 말로 변화되도록 한다.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들이 가져다 주는 느낌과 이미지를 받아들인다.

+ 마침기도 : 세 가지 담화로서 기도를 마친다.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인 성모 마리아에게 다가간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성모 마리아는 성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나 자신의 말로 성모 마리아에게 다음의 은총을 빌어 달라고 청한다 :

- 나의 죄스러움에 대한 깊은 자각과 죄를 싫어하는 마음 ;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2권

- 내 생활의 무질서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님의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내는 지혜 ;
- 마음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모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나를 그 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용기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같은 은총을 청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로 향하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 주신 그 분께도 같은 은총을 나에게 선물로 내려 주실 것을 간청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에 떠오른 모든 내적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셋째 주, 여섯째 날

당신은 선택해야만 한다!

I 요한 2, 12-17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이여,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 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이 이미 악마를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이여,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살며

악마를 이겨 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좇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해설 :

“애야, 축하한다. 나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너는 정말로 옳은 길을 선택하였다.

그 동안 네가 포기해야만 했던 모든 것 보다는 이 졸업은 더 가치있는 것이다. 그 동안 네가 기울여 온 모든 노력을 보상받게 될 것이다.”

졸업식 후의 환영 파티에서 졸업생들과 부모님들 사이에 끼어 있다 보면 이런 찬사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귀에 들려올 것이다. 얼마나 보람된 순간인가! 아버지가 지녀오고 꿈꿔 온 희망과, 오늘을 위해 일하고 희생해 온 모든 사랑의 노력이 실현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찬사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감지한다. 우연히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 찬사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버지만이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기쁨을 어렴풋이 느낀다.

자녀를 칭찬하는 아버지 말씀의 따스함을 우리는 초대 교회 공동체에 전하는 성 요한의 메시지 안에서 발견한다.

성 요한은 신앙 안에서 그가 양육한 모든 사람들을 그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부른다.

성 요한은 그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두 집단에 초점을 맞춘다. 한 집단은 어른들로서 “아버지”라고 불리운다. 이것은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된 지 오

래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두번째 집단으로서 “젊은이들”이라고 불리운다.

졸업생의 아버지처럼 성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는 그들 안에 싹튼 선행을 보고 기뻐한다. 예수님께 믿음을 줌으로써 그들은 가장 훌륭한 선택을 취하였음을 굳게 상기시킨다.

이제 성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공동체가 받은 모든 축복들을 알려 주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현존 안에서, 그 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아는 데서 오는 넘쳐 흐르는 평화를 체험한다.

하느님께 의존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으로 이끄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하여,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심”을 아는 내적 지혜를 통하여 성숙한다.

축하연에서 자녀에게 들려주는 아버지의 말씀을 좀더 들어본다면, 아마도 칭찬의 말씀 뒤에 경고의 말씀도 들게 될 것이다.

“조심하여라. 그리고 네가 배운 모든 것을 잘 기억하여라. 바깥 세상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성 요한은 바로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들에게 경고를 준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성 요한이 말하는 “세상”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 요한은 그리스도 인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에서 전 우주를,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좋은 것이다. 예수님 자신도 자연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비유나 가르침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주 이미지로 사용

하셨다.

성 요한의 글을 읽을 때 그가 사용하는 “세상”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 말로는 “코스모스(kosmos)”인데 이 말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떨어진 세상을 뜻한다.

“세상이라는 말은 하느님과 인간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의도된 인간의 에너지를 죄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허영과 악의의 정신을 지칭한다.”

성 요한에게 있어서 선택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당신은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없다. ‘하느님’이거나 ‘세상’이다. 당신은 선택해야만 한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과 떨어진 이 세상은 죄에 물들어 있다. 세상에 속한 우리도 타락의 과정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 거기에 동참한다.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들은 좋은 것이며 우리의 복지를 위해 필요 불가결하나 동시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부분들이다.

우리 각자는 특히 쾌락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장악하거나 부(富)를 축적하는 데 도가 지나칠 정도로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성 요한은 이 세 부분을 “육감적인 몸, 정욕적인 눈, 소유에서 오는 교만”이라 부르고 있다. 이것이 성 요한이 공동체에게 주의하라고 경고를 주는 “세상”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나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거나 벗어날 수 없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에 승복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이다.

기도 안내

+ 매일 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나의 죄스러움의 뿌리를 깊이 깨닫고 더 큰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성 요한의 서간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듣는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아 왔는지 반성해 보라는 그의 권면을 듣는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을 특징짓는 무질서와 부패에 나는 어떻게 동참했으며 기여했는지 곰곰이 생각한다.

성 요한이 말하는 세 가지 유혹 - 쾌락의 추구, 권력에의 집착, 부의 축적 - 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목록을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더욱 무거운 죄를 범하도록 하는 나의 어떤 성향(性向, disposition)이나 소인(素因, predisposition)까지도 드러내게 하는 나의 행동 양식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의 조그마한 것들이 인격이나 태도를 좀먹는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몇 가지 것들 : 조급함, 상스러움, 불결함, 추잡한 서적, 수다스러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조롱함, 일상 생활에서의 사소한 자기 중심주의, 하찮은 원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 시간 낭비, 비결함, 성스러운 것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 영리한 재담으로 가장한 해로운 양심, 고집과 완고, 다른 사람들이 참을 수밖에 없는 변덕스러움, 무질서한 일, 불쾌한 일을 미루는 것, 가십(gossip), 자만과 자찬,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선호(選好), 졸속한 판단, 잘못된 자기 만족, 태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경향,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 ……”(59, p.61)

……충동적이고 과다한 구매(購買), 과음/과식, 언제나 최고/일등/옳아야 하는 것,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 무례함, 야한 잡지와 쓰레기 같은 TV 극, 부정적/과도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2권

사소한 비평, 견잡을 수 없이 내는 화, 습관적으로 자주 부리는 화, 가장(假裝)된 적대감, 성차별(性差別) 하는 언어나 태도……

+ 마침기도: 세 가지 담화로서 기도를 마친다.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인 성모 마리아에게 다가간다. 예수님의 어머님으로서 성모 마리아는 성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나 자신의 말로 성모 마리아에게 다음의 은총을 빌어 달라고 청한다:

- 나의 죄스러움에 대한 깊은 자각과 죄를 싫어하는 마음:
- 내 생활의 무질서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님의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내는 지혜;
- 마음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모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나를 그 분으로부터 빛나게 하는 모든 것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용기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같은 은총을 청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 주신 그 분께도 같은 은총을 나에게 선물로 내려 주실 것을 간청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성 요한의 서간을 기도 가운데 묵상하고 또 죄스러운 행동 양식 목록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죄스러운 경향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영적 일기에 적는다. 아직 나에게 잘 나타나지 않은 것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야고 1, 13-18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느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 그들 속에 버려 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해설:

야고보 사도는 죄가 어떻게 교묘히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와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지 말해 준다.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새 삶을 찾을 때까지의 고통스러운 여정(旅程)을 회상하는 어느 여인의 다음과 같은 증언이야말로 위의 성서 구절에 대한 감동적인 주해(註解)이다.

“포도주의 첫 잔이 어떠했느냐구요?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호기심에 가득 찼었으며 매우 마시고 싶었지요. 포도주는 수정 글라스 안에서 반짝였고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지요.

저 역시 포도주를 조금씩 들이켰어요. 파스하더군요. 곧 술잔을 비웠어요. 아! 얼마나

포근한 기분이었는지! 정말로 좋았어요. 더 이상 우울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행복감에 어지러운 지경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포도주를 더 마셨으며 취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야릇한 느낌이 들더군요. 웃기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웃었어요! 늘 우울했던 저는 전혀 재미를 느껴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웃길 수 있게 되었다니!

그날 저녁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포도주가 우울증을 씻어 준다는 것과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그 포도주 첫 잔이야말로 아주 순수한 것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 날의 경험이 너무도 강렬하여 또다시 되풀이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저의 우울증이나 그 원인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의 잘못 - 어린 저에게 저도 모르게 죄를 저지르게 한 - 으로 시작된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를 회피하려 했지요.

그러나 그 실수와 죄는 성년이 될 때까지 저를 괴롭혔지요. 자기 부정(自己否定), 우울증, 그리고 불행감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겠습니까? 자살을 하거나 술에 취하는 것만이 거기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 같았어요.

내 마음에 증오와 아픔과 죄의식의 찌꺼기가 남아 있는 한 나의 삶은 괴로움 그 자체였어요. 이 괴로움에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쉽게 헤어나는 방법으로서 술의 유혹을 받게 되었지요. 그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었어요.

얼마 못 가서 알코올 중독의 참상(慘狀)이 저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어요. 저는 '하느님께서는 내게 관심도 없으시고 나를 도와 주시지도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하느님께서서는 위대한 분이시지만 저는 어느 나쁜 사람 때문에 파멸에 이르렀어요.

제가 처절한 갈등 대신에 마음의 평화를 열망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평온에 이르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에서 안정제로, 또 진통제로 방향을

바뀌어요. 이렇게 외적인 약물에 중독되고 그 효능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저는 빨리 죽는 길로 치닫게 되었어요.

점차 약물의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진짜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저는 점점 더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하느님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만 못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약물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은 것이지요.

정말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어요. 알코올 중독의 결과는 죽음 -영적, 감정적, 육체적 죽음-이지요. 저는 육체적으로 이미 거의 죽어 있었고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셈이었지요.

중환자실에서 깨어나 제가 운 좋게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에 무언가 뭉클하는 게 있었어요. 전날 저녁 약물과용으로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이며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 네가 이렇게 만들었다. 바로 내가 저지른 일이다. 그런데 너는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침내 저는 제 삶과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지요.

그 후 몇 주 동안 몸을 회복하면서 하느님께서 저의 삶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였어요. ‘하느님께서 내게 무심하다고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 분이 결정하시게 하자.’

첫 타락의 순간으로부터 빛을 향하게 된 그 때까지 저는 저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만큼 더 성숙하게 되었지요. 회복의 과정에서 저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느님께서 언제나 거기에 계십니다. 항상 도와 주고 치유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제 마음의 갈등은 사라지고 이제는 평정과 평화와 고요함이 제 삶을 지배합니다. 제 우울증의 원천을 정면으로 대하였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지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께서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은총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 의한 잘못과 죄 때문에 제 삶이 파괴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 자유(自由)여!”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나의 죄에 대하여 더 크고 강렬한 슬픔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눈물까지도 흘릴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야고보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는다.

유혹에 넘어간 첫 단계, 그리고 그것이 점차 바이러스(virus) 병균처럼 퍼져서 내 삶의 많은 부분 -사목(司牧), 자부심, 기도, 인간 관계 등-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을 상기하면서 내 삶 안의 죄스러움의 영역을 깨닫는다.

+ 마침기도 : 세 가지 담화로서 기도를 마친다.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인 성모 마리아에게 다가간다. 예수님의 어머님으로서 성모 마리아는 성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나 자신의 말로 성모 마리아에게 다음의 은총을 빌어 달라고 청한다 :

- 나의 죄스러움에 대한 깊은 자각과 죄를 싫어하는 마음 :
- 내 생활의 무질서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님의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내는 지혜 ;
- 마음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모든 원인을 파악

할 수 있는 능력과, 나를 그 분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모든 것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용기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같은 은총을 청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 주신 그 분께도 같은 은총을 나에게 선물로 내려 주실 것을 간청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

죄의 유혹이 어떻게 나의 삶에 영향을 주었고 반면에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그 분께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야고 3, 2-12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고분고분 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배를 보십시오. 거센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크디큰 배라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조종됩니다. 그래서 키잡이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마음대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뿜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 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 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모든 들짐승과 새와 길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울 만큼 악한 것이며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내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은 샘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이 함께 솟아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형제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어떻게 올리브 열매가 달릴 수 있으며 포도덩굴에 어떻게 무화가 열매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짠 물에서 단 물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해설:

어느 살인 강도가 감옥을 탈출하여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아무나 무차별하게 쏘 죽인

다는 소식이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폭력이 폭력을 불러오는 가운데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사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미치광이나 광신자(狂信者)가 휘두르는 총칼에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

야고보서의 이 구절은 말의 능력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혀가 잘못 사용될 때 그 특유의 “죽음”을 불러 일으키고, 또 우리 안에 부정할 수 없는 공포와 경계심을 일으키는 무서운 무기로 변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혀는 한 사람을 산산조각 내고 철저히 매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때로는 날카로운 독설로, 때로는 부드럽고 교묘한 말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거나 관계를 단절시키며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분열시키기까지 한다.

이와 같이 죽음을 몰고 오는 혀가 가진 잠재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지만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은 더 많다…… 혀 때문에 당하는 죽음은 무서운(비참한) 죽음이고……”(집회 28, 18. 21a).

집회서의 이 구절은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초래하게 되는 위험을 경고한 야고보 사도의 말을 한층 더 강조한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 모두는 무절제하게 함부로 말하는 습관에 빠진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재갈과 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야고보 사도는 자제력(自制力)의 필요성을 결정적으로 보여 준다.

우리는 사람의 혀가 갖는 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받은 말의 선물 안에 잠재해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말을 탄 사람이 말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말을 조종하고, 배의 조종사가 키를 사용하

여 향로를 잡듯이, 의지(意志)는 혀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는 자주적 결정의 힘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意志)를 가지고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에 책임을 질 때, 즉 우리가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말을 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말의 혜택을 입게 되고 서로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보다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듯이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노력할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 의지의 사용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열쇠이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체력을 잃어버리기 쉬운 성질을 타고 났다. 우리 안의 이러한 무절제를 특징짓는 사악함과 무질서를 극복하는 데는 의식적인 의지의 사용이 요구된다.

똑같은 말이 선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악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첫마디를 내 뱉을 때 이미 우리가 의도하는 효과 -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즉 남을 축복하는 것이건 저주하는 것이건 - 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당부한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축복하는 말을 선택함으로써 악마(惡魔)로부터 시작되었고 온 창조물에 두루 번져 나간 파괴의 불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다.

“그대가 선물로 받은 그 거룩한 직무…… 그 직무를 등한히 하지 마시오. 이 직무에 전념하고 정성을 다하시오. 그리해서 그대가 발전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하시오. 그대 자신을 조심하고 그대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해 나가면 그대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I 디모 4, 14 이하).

우리 각자가 신앙 안에서 의지를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말의 선물을 본래의 의도대로, 즉 찬미와 축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나의 죄에 대하여 더 크고 강렬한 슬픔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눈물까지도 흘릴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야고보서에 나오는 희의 선용 및 악용과 의지의 중요성에 비추어,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의지의 사용과 역할에 대해, 특히 나의 말과 관련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한다. 나 자신이 더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도록 은총을 구한다.

먼저 나의 의지를 살펴본다.

“나의 의지는 자주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 흔들리는가?

나의 감정 -우울증, 분노, 또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가?

타성(惰性)에 의해 마비되는가?

습관에 의해 잠드는가?

잡다한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가?

의혹 때문에 약해지는가?

“나는 일반적으로 내 존재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원하는 것을 나의 의지로 행하는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 더 우세한가?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과 가장 중요한 관계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들을 자세히 기록한다.”

어느 특정한 날의 나의 말의 양상들에 대하여 반성해 본다. 나의 말들은 축복이었나 저주였나?

나의 삶 안에서 나의 말이 무질서함을 느끼고 따라서 나의 의지가 더 강해져야 함을 깨달으면서, 다음의 상황들 안에서 내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행위들을 깊게 생각해 본다.

나는 축복의 방법으로 말하는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될 때까지 매일매일 다음의 행동들을 취하고 실천하겠다:

나는 전에 전혀 하지 않았던 말, 예를 들면 칭찬, 감사, 사랑의 표현을 하겠다.

나는 말하고 싶을 때 들으려고 노력하겠다.

나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말을 천천히 하겠다.

나는 절대로 하느님의 이름을 불경건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상스러운 말을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나는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대답하거나 침묵을 지키겠다.

나는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거나 우울한 침묵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로 인사하도록 하겠다.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은데 “예”라고 말하기 쉬운 경우에 용기를 가지고 “아니오”라고 말하겠다.

나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은데 “아니오”라고 말하기 쉬운 경우에 용기를 가지고 “예”라고 말하겠다.

나는 내가 함께 이야기 할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응답을 미리 부드럽게 상상해 보겠다.

나는 아름다운 성서 구절이나 기도문, 그리고 시구를 읽고 낭독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기대하든 간에 관계없이 나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신중하게 말하겠다.

나는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예를 들어 분노, 사랑, 슬픔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보겠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변화를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행동 목록을 작성하여 그것들을 계속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무질서한 행위의 어떤 부분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마침기도 : 담화

세 가지 담화로서 기도를 마친다.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인 성모 마리아에게 다가간다. 예수님의 어머님으로서 성모 마리아는 성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나 자신의 말로 성모 마리아에게 다음의 은총을 빌어 달라고 청한다:

- 나의 죄스러움에 대한 깊은 자각과 죄를 싫어하는 마음 ;
- 내 생활의 무질서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님의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내는 지혜 ;
- 마음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모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나를 그 분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모든 것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용기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같은 은총을 청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 주신 그 분께도 같은 은총을 나에게 선물로 내려 주실 것을 간청한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2권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

나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택한 행동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이 선택을 가져오
게 한 모든 느낌과 깨달음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야고 4, 1-10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정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절조 없는 사람들! 이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심어 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는 성서 말씀이 공연한 말씀인 줄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해설:

우리는 남들이 가진 것을 우리도 갖고 싶어 한다.
우리는 남들의 성공을 시기한다.
우리는 욕심이 많으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최선(最善)과 정상(頂上)을 노리는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이나 칭찬을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의 비뚤어진 열정은 우리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며 무서운 주먹을 휘두른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그 공격을 당해 낼 방법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善)의 힘에 승복(承服)함으로써만이 평화를 찾을 수 있다.

평화는 단순한 긴장 완화(緊張緩和, detente)가 아니다. 긴장 완화 안에서 사는 것은 무지각(無知覺)과 잘못된 조화(調和)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며, 겨우 수동적으로 존재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억지로 참고 살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설명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내심으로부터의 폭발에 물리게 되거나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내적 자아(內的自我)를 직시하고 대면할 자세를 갖추야 한다. 자의식의 성장에 필요한 기도, 반성, 및 자기 단련을 할 용의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언행의 배후에 있는 무의식의 동기(動機)를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특별한 일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완벽성의 중독(中毒)(Addiction to Perfection)」의 저자인 마리안 우드만은 그 책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옳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남보다 잘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건, 또 그것을 어느 분야에 적용시키건, 그 이름은 자존심(自尊心)이다.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성향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자신에게 다음의 질문들을 해야 한다:

내 안의 밑바닥에 깔린 욕구는 무엇인가?

나의 이 행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자족(自足)하

려는 나의 욕구를 어떻게 채워 주는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나의 언행(言行)은 내 자신의 죄스러운 면을 어떻게 드러내며 또 어떻게 반영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진정한 자아(自我)를 인식할 수 있다. 우리의 좋은 점뿐 아니라 한계점들, 부서진 점들, 그리고 죄스러운 면들까지 알아낼 수 있다.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고통과 아픔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되며 이러한 자각(自覺) 안에서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식의 보다 높은 단계에 이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유하고 가장 진실한 가치와는 거리가 먼 다른 외적 가치들에 의존했던 이전의 이상(理想)이나 행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들은 우상과도 같이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켜 왔다. 우리는 껍데기를 벗긴 이 외적 가치들의 참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 그것들은 곧 가짜 신(神), 즉 우상들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그것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어느 옛 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친구들이여,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너희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

우리의 하느님께서는 축복의 하느님이시며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갈망하신다. 성서는 우리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사랑에 비교한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서도 가짜 신(神)들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거역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 드리는” 일이다. 따라서 이것은 간통죄에 비유되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다. 하느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바라신다(마태 22, 37-38). 헌신적인 배우자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신들과 공유(共有)하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신 아닌 것을 모시어 내 질투심을 터뜨리고 허수아비를 섬겨 내 속을 썩여 주었으니”
(신명 32, 21a).

“하느님께 순명하라.” 사랑으로써 응답함은 곧 순명함이다. 사랑의 하느님께 순명함은 곧 항상 기도함을 의미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숨을 깊이 들이 마시는 것이다. 삶 그 자체와 같이 기도는 사랑의 울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삶의 양분을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어린애 같이 이에 의존하는 우리의 울동 ;
하느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울동 ; 그리고 하느님의 우리에게
대한 친밀한 사랑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울동.

“주님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를 올리시리라.”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내가 하느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고백한다.

+ 구하는 은총 :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나의 죄스러움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진실한
통회를 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만트라 (28쪽)

“하느님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

이 말들을 만트라로 삼아 정신을 집중한다. 숨을 내쉬면서 “하느님은 가까이 다가갈수

룩”이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숨을 들이 마시면서 “내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라고 말한다.

+ 마침기도 : 담화

세 가지 담화로써 기도를 마친다.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인 성모 마리아에게 다가간다. 예수님의 어머님으로서 성모 마리아는 성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나 자신의 말로 성모 마리아에게 다음의 은총을 빌어 달라고 청한다:

- 나의 죄스러움에 대한 깊은 자각과 죄를 싫어하는 마음 ;
- 내 생활의 무질서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님의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내는 지혜 ;
- 마음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모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나를 그 분으로부터 빛나게 하는 모든 것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용기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같은 은총을 청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 주신 그 분께도 같은 은총을 나에게 선물로 내려 주실 것을 간청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

만트라 기도를 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느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루가 12, 16-21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였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 '이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혼자 궁리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는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 두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하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네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 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 둔 것은 누구의 차지이 되겠느냐?'고 하였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해설:

이 얼마나 재미없는 이야기인가? 이 부자 농부가 한 이야기는 그가 무엇을 가졌고, 얼마나 큰 수확을 거두었으며, 그가 그 동안 무엇을 해왔고, 남은 여생에 그가 즐길 호시절(好時節)에 관한 것뿐이다.

천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자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안전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신다. 불쌍한 이 부자는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건물을 짓고, 곡식을 쌓는 일에 평생을 보냈다. 그가 남은 여생을 즐기려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파산(破産)했다고 선언하신다. 이 부자는 영적으로 파산하

였으며 하나님의 눈에 전혀 부자로 보이지 않았다.

이 부자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물질 소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재산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이 성서 구절이 우리의 현실에서 갖는 의미는 너무도 명백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재산이나 소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너무도 뚜렷하다. “안전”이라는 말은 대체로 재정적인 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로 우리는 재산을 모으는 데 급급하여 우리의 노력과 시간의 대부분을 이를 위해 쓰게 된다.

우리의 문화 안에 스트레스에 관련된 병이 빈번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이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 모진 애를 쓰는 우리의 숨은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징표이다. 이것은 끝도 없고 점점 심해지는 투쟁이며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목숨까지 잃는다. 그 밖의 사람들도 살아 있기는 하지만 자기 중심적 고정 관념 안에서 정신적으로 마비 상태에 있다.

루가의 이야기가 이 점을 대단히 강조하고는 있지만 물질 소유 자체를 단죄(斷罪)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게으른 삶이나 무책임하게 남에게 의존하는 삶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또한 임박한 죽음이나 최후 심판에 관련된 경고로 해석되는 데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이 이야기 안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심판이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경종(警鍾)을 듣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성령에 의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소홀하여 우리 자신 안에 이미 현존하고 항상 열려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잃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 속의 부자의 비극이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립시다(히브 12, 28).

기도 안내

+ 매일 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나의 죄에 대하여 더 크고 강렬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이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가장 두드러지고 근본적이며 교묘한 무질서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의 질문들을 고려하면서 이 무질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인식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한다 :

나는 무엇을 모으고 있는가? - 재산, 학위, 특권, 명예.....?

나의 “보물”을 담아 두기 위해 나는 무엇을 구축했나? - 역할, 지위, 건물.....?

미래의 보장책으로 나는 무엇을 쌓았는가? - 명성, 부(富), 권력, 관계.....?

+ 마침기도 : 세 가지 담화로써 기도를 마친다.

우리과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인 성모 마리아에게 다가간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성모 마리아는 성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나 자신의

말로 성모 마리아에게 다음의 은총을 빌어 달라고 청한다 :

- 나의 죄스러움에 대한 깊은 자각과 죄를 싫어하는 마음;
- 내 생활의 무질서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님의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지혜 ;
- 마음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모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나를 그 분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모든 것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용기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같은 은총을 청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향하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 주신 그 분께도 같은 은총을 나에게 선물로 내려 주실 것을 간청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

위의 질문들에 대한 나의 응답들과 이 기도 시간에 떠오른 모든 느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마르 7, 1-23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 모여 왔다가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원래 바리사이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인들은 조상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었고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나서야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었다. 그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았는데 가령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 같은 것을 씻는 일들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하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사가야 무어라고 예언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느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려야 할 것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라는 뜻으로 ‘코르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전해 오는 전통을 핑계삼아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

회는 이 밖에도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내 말을 새겨 들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께서는 “너희도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모두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뒤로 나가 버리지 않느냐? 그것들은 마음속으로 파고 들지는 못한다.” 하시며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해설:

마르코 복음 7장은 신약 성서 안에서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자적인 통찰을 가지고 그 동안 예배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채택되어 온 형식적인 예배를 분명하게 반대하셨다. 무엇이든 “깨끗하고” 무엇이든 “더럽고”하는 캐캐묵은 관념에 근거를 둔 광신적인 정결(淨潔) 개념을 예수님께서서는 말씀과 비유로써 여지없이 무너뜨리셨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모세의 계약이 지닌 희망과 자유의 참된 의미를 잊고 있었다.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강압적인 지도 체제에 예속되었던 유대 인들은 온갖 규율과 규제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 성서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제관 계급에 대항해 온 평신도 단체였다. 바리사이라는 말은 “분리(分離)”를 의미한다. 의식과 율법에 대한 광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리

사이파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부터 분리시켰다. 이렇게 고립된 가운데 그들은 남들과 다르다는 과장된 우월감을 갖게 되었다.

율법과 전통의 준수는 하찮은 데까지 철저해야 했다.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가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의 신앙을 쇄신하려는 진실한 노력으로 시작된 율법에 대한 경외가 율법을 과대망상적으로 강조하는 율법주의로 둔갑해 버린 것이다. 아 이러니하게도 율법 자체가 내적 쇄신의 장애물로 둔갑해 버렸다.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니 내적으로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었다. 점차적으로 외적인 율법의 준수는 보다 깊은 율법의 의무, 즉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신명 6,5-6).

이 과도한 관습이 쓰고 있는 가면과 부당함에 놀란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과도한 관습이 위선(僞善)이라고 비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엄한 것이었다. 위선(僞善) - 가면(假面) - 과 잘난 척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남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기 위해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하였고, 사람들의 성실성을 이용하여 그들 자신의 위치를 높였다.

이 성서 구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두 가지 면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비판하고 나무라셨다. 강제성을 띤 정결 예식과 코르반과 같은 교묘한 속임수가 그것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함으로써 이 열띤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법의 구속력을 지니게 된 오랜 전통과 직면하게 되었다. 수백 세대를 거쳐 구전(口傳)되어 내려온 이 엄격한 전통은 - 할라카(Halakak)이라 불리움 -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규칙들과 법령들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상황을 지배하였다.

손과 그릇을 씻는 정결의식의 지시 사항들은 그 도가 지나쳐 어처구니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손은 어느 특정한 방법으로 씻어야 했으며 그릇들은 그 모양과 재료 및 용도에 따라 씻는 방법이 달라야 했다.

이렇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해독한 관습을 제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용서없이 나무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순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비열한 현실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보여 주심으로써 그들의 자기 정당성(自己正當性)의 보호막을 꿰뚫으셨다. 몇 세기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취했던 비난을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사정없이 적용하신 것이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느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한 척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허식의 껍질을 계속하여 벗겨내신다. 살을 에이는 풍자(諷刺)와 무류(無謬)의 정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서는 판단을 내리셨다: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번째로 구린내 나는 그들의 “재간(才幹)”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비난하셨다. 그것은 그 당시 유행한 코르반(corban)이라는 못된 풍습에 관한 것이었다.

원래 코르반은 하느님께 선물을 드리는 행위였다. 그 선물을 “코르반”이라고 불렀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코르반은 악용되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였다. 그들은 진짜 의무를 회피하였으며 심지어는 늙은 부모를 돌

보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코르반”이라고 선언된 것은 어떠한 것이든 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부모에게 “제 모든 재산을 하느님께 바쳤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을 더 이상 돌보아 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비록 나중에 자신의 약속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우선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돈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한 번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전통의 보다 깊은 의미를 깨달을 것을 촉구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의 가르침의 근본 정신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신다.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는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특권과 통치권을 누리기 위한 그들의 이기적인 술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느님 율법을 악용한 대가는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에 현존하는 영혼의 부정(否定)이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무가치하고 공허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지도자들이었다!

연민에 가득 찬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라고 초대하셨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보편성을 나타내며 영적인 엘리트주의(Elitism)의 사멸(死滅)을 의미한다. “이해하라”는 말씀은 뒤에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준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놀랍고 또 새로운 것이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깨끗하고” “불결한” 것의 구분에 기초를 둔 경직된 도덕적, 윤리적 구조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으셨다. 사물(事物) 그 자체는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며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이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형식적인 걸치레를 부정하셨다. 즉 종교적 생활을 지배해 온 전통이나 법규, 규율이나 의식(儀式)은 전혀 쓸데 없는 것이었음을 선언하셨다.

애석하게도 제자들은 이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개별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각자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실 안에서 사람들은 궁극적인 사랑의 법칙을 발견한다. 결국 내적 성장과 인격의 개성화는 외적인 법칙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마음과 의식(意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율법의 도덕성을 초월하는 올바른 깨달음을 발견할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 - 밖으로 나타나는 표현, 즉 언행의 “깨끗함” -은 우리가 내적으로 하느님의 영(靈)에 얼마나 주의할 기을이는가에 비례한다.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나의 죄에 대하여 더 크고 강렬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예수님께서서는 “위선자들”을 혹독하게 나무라셨다. 위선자(hypocrites)라는 말은 원래 옛 시대에 극중 인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 “가면을 쓴” 연극 배우들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선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바라보신다. 나는 예수님의 눈을 들여다 본다.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는가?

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항상 옳은 사람인가?통치권을 장악한 사람인

가?

나는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 겉으로는 미소를 짓는가?

나는 거울을 들여다 보듯이 예수님의 눈을 들여다 보며 나의 가면이 드러나게 한다.

나는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치 내게 하시는 것처럼 주의 깊게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불러 일으키는 느낌과 이미지를 통하여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 마침기도 : 세 가지 담화로서 기도를 마친다.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인 성모 마리아에게 다가간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성모 마리아는 성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나 자신의 말로 성모 마리아에게 다음의 은총을 빌어 달라고 청한다 :

- 나의 죄스러움에 대한 깊은 자각과 죄를 싫어하는 마음;
- 내 생활의 무질서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님의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내는 지혜 ;
- 마음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모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나를 그 분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모든 것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용기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같은 은총을 청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 주신 그 분께도 같은 은총을 나에게 선물로 내려 주실 것을 간청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모든 감정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루가 18, 9-14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과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사이과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 에 두 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십분의 일을 바칩니다.’하고 기도하였다. 한편 세리는 멀 짝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 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기도하였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 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과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 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해설:

바리사이과 사람과 세리 중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이 둘 중의 어느 하나와 동일시 하는 경향과는 반대로 우리 모두는 바리사 이과 사람과 세리의 성격이나 태도를 같이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바리사이과 사람의 태도 안에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이 이야기 안에 서 바리사이과 사람은 매우 당당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바리사이과 사 람들은 율법을 충실히 지켰다. 그들은 단식하였고 기도하였으며 십일조를 바쳤다. 외적으 로, 그리고 공적으로, 그들은 율법이 정한 모든 종교적 의무를 다 준수하였다.

이 이야기 속의 바리사이과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기도 내용은 어떠했는가?

이 이야기 속에서 그가 자기 “자신에게” 한 기도를 들으면 재미있기까지 하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였다!

하느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된 것이 스스로의 과장된 거룩함을 스스로 자화 자찬하는 말로 흘러 버렸다. 양 팔을 벌리고 서서 자신 만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공적인 기도의 광장을 이용하였다. 겉으로는 기도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상은 기도가 아니었다.

세리의 위치와 표현은 바리사이파 사람의 그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이고 땅을 내려다 보며 자비를 청하였다. 주먹을 쥐고 가슴을 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강하게 죄를 뉘우치는지를 보여 주는 표시였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세리는 자신을 단순히 한 죄인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이 죄인이라고 여겼다고 되어 있다. 그의 인간적인 죄의 깊이와, 한 세무 공무원으로서 그가 범한 사기(詐欺), 이중 과세 및 횡령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예리하게 느끼고 있었다.

시편 저자와 함께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다,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시편 51, 3-4a).

바리사이파 사람의 기도와는 대조적으로 세리의 기도는 겸허했다. 그는 그의 가슴 속을 살펴보고 그가 죄를 지었음을 알아내었다. 자기로서는 어찌 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하느님의 연민에 찬 사랑과 자비에 그의 몸을 던졌다. 바로 이 진실과 승복(承服)의 순간에 그는 올림을 받았다.

바리사이파 사람과 세리의 차이는 이 이야기의 끝까지 이어진다. 자신을 자화 자찬한 바리사이파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반면에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에 자신을 내맡긴 세

리는 그의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그의 죄의 고백은 보다 깊은 자신의 현실을 일깨웠다; 그의 죄의 고백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길을 준비해 주었다. “.....그는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하게 다음의 말씀으로써 이 가르침을 끝맺으셨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나의 죄스러움을 보다 깊이 느끼고 더 큰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관상 (26~27쪽)

나는 성전에 있는 나 자신을 그린다. 성전을 자세히 관찰하고 운집해 있는 예배자들을 의식한다.

내 주위에 바리사이파 사람과 세리가 있음을 느끼면서 나는 먼저 바리사이파 사람의 역할을 맡는다.

나는 그가 차지했던 기도 장소의 안쪽을 차지한다.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태도와 성향을 반영하는, 나를 과시하는 기도를 바친다.

다음 나는 세리의 역할과 위치와 마음가짐을 취한다. 그가 한 대로 기도한다. 슬픔을 표시하며 나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를 청한다.

관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일어났는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배웠는가..... 나의 태도, 나의 죄의 영역, 나의 슬픔의 깊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바치시는 것을 바라보고 듣는다.

+ 마침기도 : 세 가지 담화로서 기도를 마친다.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인 성모 마리아에게 다가간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성모 마리아는 성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나 자신의 말로 성모 마리아에게 다음의 은총을 빌어 달라고 청한다 :

- 나의 죄스러움에 대한 깊은 자각과 죄를 싫어하는 마음 ;
- 내 생활의 무질서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님의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내는 지혜 ;
- 마음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모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나를 그 분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모든 것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용기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같은 은총을 청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 주신 그 분께도 같은 은총을 나에게 선물로 내려 주실 것을 간청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에 떠오른 모든 내적 감정,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기도 안내

+ 매일 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나의 죄에 가득 찬 무질서의 뿌리를 더욱더 깨닫고 보다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30쪽의 “반복”을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를 위한 준비로 지난 번 반복 이후의 영적 일기를 읽으면서 나의 그 동안의 기도를 반성한다. 내가 가장 깊은 감동을 느꼈던 날의 기도나, 가장 무미건조함을 느꼈던 날, 즉 가장 느낌이 적었던 날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그날 기도한 것을 그대로 되풀이 한다. 그날 선택된 성서 구절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연다.

+ 기도 후 반성 :

이 “두번째 듣는” 시간 동안에 마음에 떠오른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용서

루가 15, 11-32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 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 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다. 하인이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 분이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 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주시다니요!'하고 투덜거렸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 않겠느냐?'하고 말하였다."

해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무대 위에서 재연(再演)되어 왔고 그림과 음악 안에서 재생되어 왔으며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가정(家庭) 안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어 왔다.

루가 복음사가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감정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는 매우 인간적인 상황의 이 드라마 안으로 즉시 빠져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두 아들을 가진 어느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잃었다. 한 아들은 외국 땅으로 잃었고, 또 다른 한 아들은 자기정당성(自己正當性)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잃었다"(16, p.182).

흔히 '돌아 온 탕자(蕩子)의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에 있기 때문이다.

작은아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을 미리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느꼈을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부친의 사망 전에 상속자들이 유산을

나누는 경우도 적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 속의 작은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릴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집을 떠나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근심에 가득 찼음에 틀림없다.

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한 끝에 비참한 거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는 배가 고팠고 머물 집도 없었으며 외로웠다.

이방인이 키우는 돼지를 치는 지경에 이른 그 아들은 유대 인에게는 가장 비참하고 낮은 처지로까지 떨어진 것이다. 유대 인들에게 돼지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더러운” 동물로 여겨졌었다. 또한 이방인에게 고용된 것은 야훼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마침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그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아들의 뜨거운 염원 안에 현존하였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과 그리움 안에서 -한 사람은 부르고 한 사람은 응답함으로써- 서로 일치될 이루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였다; 그는 부드럽게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들은 미리 준비한 대로 조심스럽게 자기의 죄를 시인하였다.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에 넘친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가로 막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포용함으로써 그 아들은 환영과 용서를 받았으며 아들의 위치로 다시 회복되었다. 아버지는 벌거벗은 그의 몸을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반지를 받았다. 그 반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서의 권위가 회복되었음을 상징하였다. 그

의 발에 신긴 신은 그가 종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표시였다. 왜냐하면 그 때에는 자유인들만이 신을 신었기 때문이다.

이제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아들은 이제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이제 집에 돌아온 것이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이제 성대한 잔치를 벌이자!”

음악과 춤이 시작되자마자 아버지는 다른 아들 - 큰아들 - 의 화난 항의를 들어야 했다.

비록 큰아들의 분개(憤慨)와 악의(惡意)에 매우 실망하기는 했으나 현명한 아버지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큰아들의 태도를 보면 그의 동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작은아들을 “나의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다른 아들”이라고 불렀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태도 때문에 큰아들은 그의 동생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하고도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큰아들도 또한 잃어버렸다; 큰아들 자신이 스스로 만든 외지(外地)로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작은아들에게 대했듯이 큰아들을 대하였다. 아버지는 동정심이 많았다. 그는 큰아들을 나무라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타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큰아들에게 그의 부정적인 태도를 직시하라는 것, 그의 위치를 받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동생의 귀환을 같이 기뻐하자는 초대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것이다; 모두가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우리가 서로에게 갖고 있는 모든 편견과 오해를 살펴보라는 훈명(訓命)을 듣고 있는 것이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인 우리는 우리가 받을 상속권을 청구하라

는 초대를 받았으며 동시에 그 상속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부르심을 들은 것이다.

연회(宴會)는 준비되었다. 당신은 하느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것인가?

기도 안내

+ 매일 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나의 죄스러움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보다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관상 (26~27쪽)

이 이야기가 내 몸 안으로 깊이 스며들어 오도록 마음을 연다. 두 아들 중의 한 아들 보고 앞으로 나오라고 부른다. 나는 그의 행동과 말을 자세히 관찰한다. 그리고 그의 역할을 맡아 상상 속에서 그 상황을 재연(再演)해 본다.

만약 작은 아들을 선택하였다면

상속을 요구하고 집을 떠나 돈을 낭비하는 내 자신을 상상한다.

만약 큰 아들을 선택하였다면

내가 처한 상황과 내 동생에 대한 분개(憤慨), 아버지와의 대화와 그의 초대를 상상한다.

이 이야기의 끝까지 따라간다.

+ 마침기도 : 세 가지 담화로써 기도를 마친다.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인 성모 마리아에게 다가간다. 예수님의

어머님으로서 성모 마리아는 성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나 자신의 말로 성모 마리아에게 다음의 은총을 빌어 달라고 청한다:

- 나의 죄스러움에 대한 깊은 자각과 죄를 싫어하는 마음;
- 내 생활의 무질서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님의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내는 지혜;
- 마음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모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나를 그 분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모든 것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용기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같은 은총을 청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 주신 그 분께도 같은 은총을 나에게 선물로 내려 주실 것을 간청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에 떠오른 모든 내적 감정,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아버지께 대한 나의 반응에 관계된 것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적는다.

루가 15, 11-32 를 다시 읽으시오.

해설:

용서하시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심중(心中)을 울린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각자는 우리 안에 두 아들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쾌락을 추구하는 작은아들이면서 동시에 의무에 충실하고 지나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큰아들이기도 하다(62, p.52). 둘 중의 하나가 더 우세하며 대개는 쉽게 확인된다. 다른 하나는 비록 잘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 안에 숨어 있으며 끊임없이 겉으로 드러나고 자 애쓴다. 마치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처럼 이 거부된 아들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만약에 누가 자신을 대체로 의무감에 충실한 큰아들과 동일시 한다면, 양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아야 하는 필요성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곧 그의 죄스러움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다른 거부당한 아들은 그 사람을 “뿌루통”한 상태에 빠뜨림으로써 그 자신을 드러내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기쁨은 사라지고 자발성을 잃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상하지 않게 된다.

만약에 누가 자신을 대체로 쾌락을 추구하는 작은아들과 동일시 한다면,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방탕한 생활에 빠지는 것이 곧 그의 죄스러움이다. 거부당한 이 아들은 아마도 그 사람의 자부심을 은근히 깎아 내림으로써 그 자신을 드러내려 할 것이다. 그 결과로 그 사람은 충동적이고 과다한 “유흥” -음식, 술, 성(性) 혹은 낭비(浪費)-이나 약물 중독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 속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그 어느 한 면에만 지나치게 치중할 때 위험이 따른다. 우리가 어느 한 아들 쪽으로 치우치는 순간에 다른 아들의 부정적인 요소의 공격을 받게 된다.

우리가 더 좋아하는 “아들”을 인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안에 공존(共存)하는 두 아들의 요소들을 화해시키는 것이 우리에게서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탕자처럼 우리도 “제 정신이 들어야” 한다. 즉 우리의 참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방성(一方性) 〈어느 한 아들의 면만을 강조하는 것〉”을 극복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 자신 안에는 우리가 꿈꾸거나 상상했던 것 이상의 참으로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다(요엘 3, 1). 우리는 각 아들이 우리에게 줄 선물을 찾아가라는 초대를 받는다. 큰아들은 견실함과 인내 및 충실성의 힘을 우리를 위한 선물로 준비하고 있고, 작은아들은 자발성과 예민성 그리고 창의성의 기쁨을 우리를 위한 선물로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선물들을 받으러 집으로 돌아오는 초대를 받는다.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다. 우리 안에 산산이 부숴졌던 파편들이 다시 합쳐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한없이 자비스러운 하느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에페 2, 4-5a).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과 일치하고 하느님과 일치한다.

에페소 인들에게 보낸 바울로 사도의 서한은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설과도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 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 버리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애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나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유대 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믿어 하느님과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에페 2, 13-19).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나의 죄스러움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보다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에페소 인들에게 보낸 바울로 사도의 편지(2, 4-5a, 13-19)를 묵상 가운데 다시 읽는다. 마치 특별히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처럼 생각하고 읽는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편지를 쓴다.

먼저 내 안에 존재하는 각 “아들”의 선물들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한다. 각 아들의 어

면 점들을 나는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성령을 내게 보내 주시어 내 안에 존재하는 홀롱하면서도 서로 상충(相衝)되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을 화해시키고 통합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한다.

하느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모두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나의 지향(志向)을 표시함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말씀드린다.

그렇게도 자주 각 아들의 성향이 갖고 있는 약점과 유혹에 빠짐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세세한 경위를 하나하나 하느님과 같이 나눈다.

하느님의 마음을 내 고향으로 삼고자 하는 나의 깊은 열망을 마음속으로부터 진실하게 말씀드리면서 편지를 끝낸다. 매 순간순간마다 생기는 모든 악과 유혹에서 나를 보호해 줄 하느님의 사랑의 힘과 지혜를 구한다.

+ 마침기도: 세 가지 담화로서 기도를 마친다.

우리과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인 성모 마리아에게 다가간다. 예수님의 어머님으로서 성모 마리아는 성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나 자신의 말로 성모 마리아에게 다음의 은총을 빌어 달라고 청한다:

- 나의 죄스러움에 대한 깊은 자각과 죄를 싫어하는 마음;
- 내 생활의 무질서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님의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지혜;
- 마음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모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나를 그 분으로부터 빛나게 하는 모든 것을 떨쳐 버릴 수 있

는 용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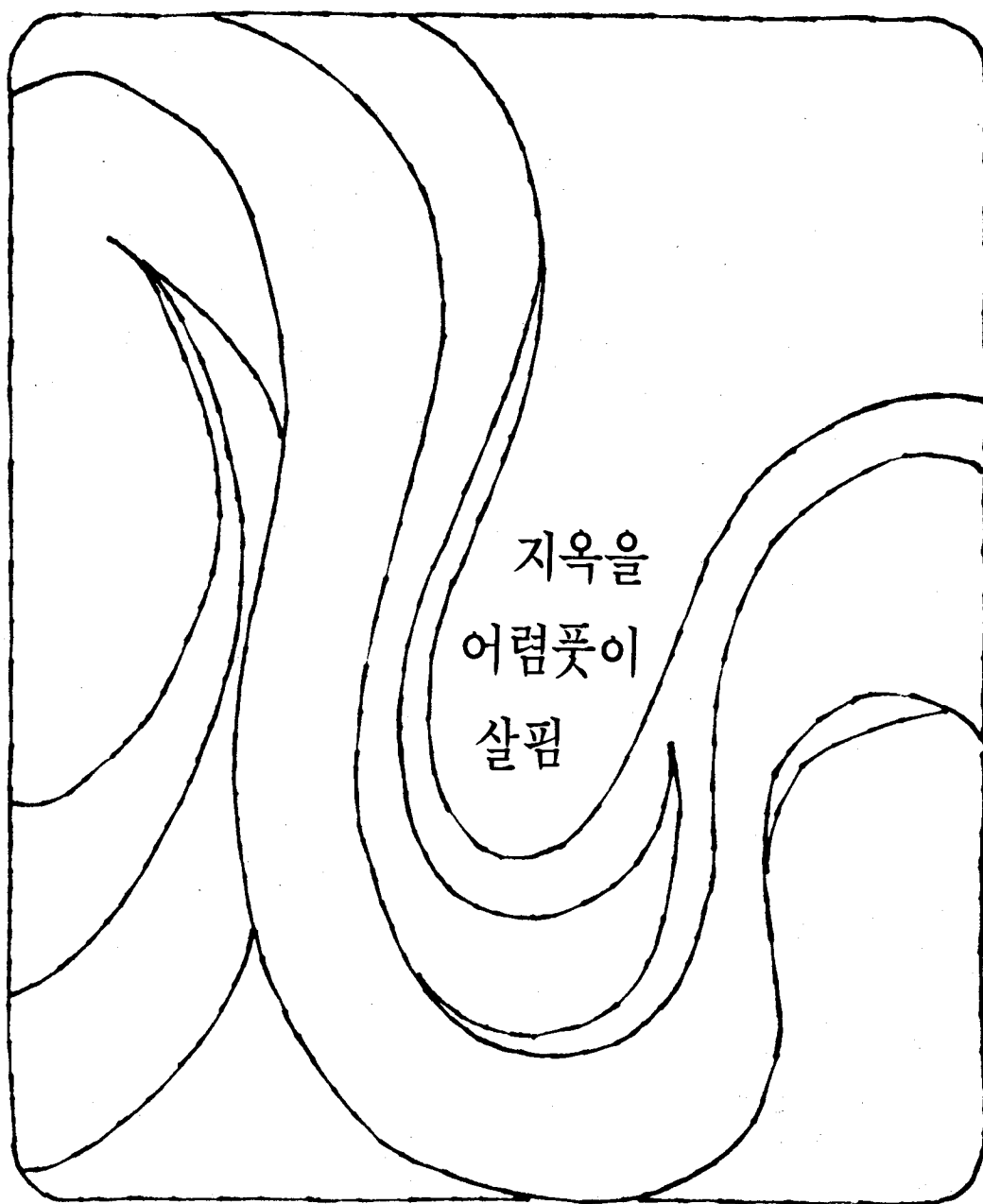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같은 은총을 청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 주신 그 분께도 같은 은총을 나에게 선물로 내려주실 것을 간청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

하느님께 편지를 쓰는 동안에 체험한 가장 뚜렷했던 느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지옥을
어렵듯이
살핌

히브 10, 26-29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도 짐짓 죄를 짓는다면 다시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없고 다만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켜 버릴 맹렬한 불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용서없이 사형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총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받을 벌이 얼마나 더 가혹하겠습니까?

해설:

“보다 많이 알수록 죄가 더 크다”(4, p.124) ; 죄가 클수록 벌이 더 엄하다.

무지(無知)의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과, 알면서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깨달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내적이며 체험적인 마음의 깨달음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아 입교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앎”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그 분을 거역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두려움에 떠난다.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를 즐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토록 큰 사랑을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

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것을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고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성령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사람은 마치 관개(灌溉)를 잘 해주고 좋은 수확을 거두라고 축복받았건만 나중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무성한 땅과도 같다. 그것은 ……버려지고 ……저주를 받아 ……마침내 불에 타 버리고 말 것이다(히브 6,8 참조).

죄가 클수록 벌이 더 엄하다.

하느님의 사랑을 고의로 그리고 끝까지 거부한 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 성서 구절에서 그 대가는 “반역자들을 삼켜 버릴 맹렬한 불”로 묘사되어 있다.

이 말을 읽을 때 중세시대(中世時代)에 사람들이 묘사했던 지옥(地獄)의 모습이 생각난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유황과 연기의 역겨운 냄새에 시달리고 끝도 없는 암흑 속에서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죄인들의 이미지가 지옥의 모습이다.

이러한 지옥의 개념은 원래 심판과 벌에 관계된 성서 구절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구약 성서에는 “지옥”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야훼를 반역했던 자들의 시체가 놓일 장소로 게헨나(Gehenna, 죽음의 계곡)라는 곳이 언급되었다. 이 이야기는 이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나를 거역하던 자들의 주검들을 보리라.

그들을 굶아 먹는 구더기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르는 불도 꺼지지 않으리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역겨워하리라(66, 24).

신약 성서에서 징벌의 장소인 게헨나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멸망되는 곳으로 묘사되었

다(마태 10, 28). 그 곳은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火淵)”(요한 묵시록 19, 20)으로서 벌받는 자들이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며(마르 9, 49),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요한 묵시록 20, 10). 암흑과 비참(悲慘)의 세계로서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마태 8, 12). 그 곳과 생명의 세계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다(루가 16, 26).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들과 가르침들 속에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죄의 심각성과 그 비극적인 결과를 전달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심으로써 상상력의 힘을 빌어 우리로부터 감각과 지성을 총동원한 반응을 이끌어 내려 하셨다.

예수님께서서 암흑의 세계로서의 지옥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육체적인 의미에서 뿐 아니라 지성적인 의미에서도 빛을 송두리째 빼앗긴 철저한 어둠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을 상상해 봄으로써 지옥이라는 현실을 느낄 수 있다. 그 사람은 혼란에 빠져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두려움에 떨 것이다. 이러한 어둠을 상상할 때 우리의 감각은 비상하게 예민해진다. 예를 들면, 깊은 정적도 천둥 번개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도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며 끈적끈적한 액체가 손에 만져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전 오관(五官)을 동원한 감각의 체험을 통하여 지옥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 가능성을 생각만 해도 역겹고 치가 떨리는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상상 속에서 체험하는 지옥이 아무리 생생하다 하더라도 실제의 지옥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단순히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맥브리언(McBrien)이 지적하듯이 지옥은 어떤 장소가 아니며 존재의 한 상태도 아니다. 그것은 “무존재(無存在)의 상태”이다(45, p. 1152).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다. 우리의 존재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향(志向)하시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가 택하는 순간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든가 하느님을 거역하든가 선택해야만 한다. 하느님을 전적으로 거

부하는 것, 즉 죄를 선택하여 그 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뿐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소외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예수님이나 교회가 실제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가르친 적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 안에 우리는 이 가공(可憐)할 지옥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이 가능성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악을 범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순수한 두려움”(59, p. 96)을 가질 수 있다.

기도 안내

+매일 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지옥의 본질인 상실(喪失)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최악에서 지켜줄 것이다.

+ 기도 방법 :

나는 상상을 통하여 지옥을 체험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길고 폭넓고 높고 깊은데 반하여 지옥은 돌이킬 수 없고 갇혀져 있으며 천박(淺薄)한 곳임을 깨닫도록 한다.

해설에서 인용된 신약 성서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나의 전 존재(全存在)가 지옥을 더욱 깊이 체험하도록 한다. 나의 오관(五官)을 차례로 사용하여 지옥을 느낀다 :

불을 바라보고

이를 가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며
유황과 연기의 냄새를 맡고,
쓰라림을 맛보며
불에 달구어 진 석탄을 만진다.

“이 무시무시한 체험이 내 안에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을 때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 그 체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 분께 말씀드린다. 예수님께서 강생하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고의로 자신들의 세계 안에 간척 있음으로써 영원한 지옥을 스스로 선택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살았으면서도 그 분의 사랑에의 부르심을 거부한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 여전히 사랑에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지옥 속에 간척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드린다.

아직까지 나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오로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자비를 보여 주신 그 분께 감사드리는 것뿐이다. 그리고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28, p. 47).

+ 기도 후 반성 :

나의 상상 안에서 체험한 지옥의 “영상”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가장 나를 사로잡았던 느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히브 10, 26-29 과 해설을 다시 읽는다

기도 안내

+ 매일 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지옥의 본질인 상실(喪失)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린 경우에라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죄악에서 지켜 줄 것이다.

+ 기도 방법 :

상상을 통하여 지옥을 체험한다.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무질서들, 즉 내가 가장 죄에 빠지기 쉬운 면들을 의식한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이 죄에 굴복해 왔는지 깊이 생각한다. 그 죄가 완전히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상상해 본다. 그 죄의 파급 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상상해 본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내가 속한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내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

나의 오관을 사용하여 이 죄로 인하여 내가 떨어질 지옥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지옥을 볼 것이다.

지옥을 들을 것이다.

지옥을 냄새 맡을 것이다.

지옥을 맛 볼 것이다.

지옥을 만질 것이다.

죄의 심각성과 아픔과 슬픔이 내 안에 깊숙이 스며들도록 하겠다.

+ 마침기도 :

“이 무시무시한 체험이 내 안에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을 때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 그 체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 분께 말씀드린다. 예수님께서 강생하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고의로 자신들의 세계 안에 갇혀 있음으로써 영원한 지옥을 스스로 선택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살았으면서도 그 분의 사랑에의 부르심을 거부한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 여전히 사랑에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지옥 속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드린다.

아직까지 나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오로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자비를 보여 주신 그 분께 감사드리는 것뿐이다. 그리고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28, p.47).

+ 기도 후 반성 :

나의 죄스러움 때문에 체험한 슬픔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요한 묵시록 18, 2. 21-23a

그는 힘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대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악마들의 거처가 되고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다.

또 힘센 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바윗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 큰 도성 바빌론이 이렇게 던져질 것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거문고 타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과

나팔부는 사람들의 음악이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들도 네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맷돌 소리도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네 안에서 등불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해설:

한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사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개개인은 몰

론 전 공동체가 꿈이 있었고 과제가 있었다. 그것은 창작(創作)이었다. 이 꿈은 너무도 강해서 신비롭게도 그들은 마치 이를 위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다 같이 조그만 도시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그 도시의 중앙에 그들의 기쁨이신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그 도시의 모든 집에서부터 이 지성소(至聖所)에서 타고 있는 불빛을 바라볼 수 있었다.

사교적이고 재미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했다. 결혼 잔치는 삼일이나 계속되었다.

그들은 창작의 업무를 매일 열심히 수행하였으며 그 일에 크게 성공하였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즐기고 찾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생활 양식도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이러한 창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그들의 생활 양식을 본따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 공동체의 평판과 명성은 점점 커졌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예술 작품들을 사기 위해 모여들었다.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은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새 날이 밝아 오는 것이 더 이상 반갑지 않았다. 밤이 되면 너무도 피곤하여 기도를 드리거나 서로가 즐길 시간도 없었다.

그들의 예술 작품의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은 점점 더 돈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더 이상 돈을 쌓아 놓고 지킬 장소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불어나자 그들은 도시의 네 귀퉁이에 은행을 세웠다. 이 은행 건물들은 네 개의 대형 기둥처럼 솟아났다.

이렇게 명성을 얻고 부유해지자 그들은 그들의 독특한 창작 능력을 독차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비밀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 사이에서조차 서로 비밀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비밀이 새어 나가면 창작 능력이 감소될지도 모른다는 평계를 대었다.

두려움에 가득 찬 그들은 군대를 창설하였고 그들의 부(富)를 탐내는 가상(假想)의 적

의 침공에 대비하였다.

더 이상 남을 믿지 못하게 된 그들은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을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성벽을 세우고 대낮에도 성문을 걸어 잠구었다. 전화가 있었음에도 바깥 세상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외부로부터의 방문객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들을 이제는 반기지도 않았다. 그 도시를 떠나기로 작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문을 나서기도 전에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점점 분명해졌다. 그들이 창작활동을 하던 방들은 생기와 환희가 넘치던 장소에서 무덤처럼 고요한 장소로 변하였다. 계속 작품들은 만들어졌지만 각 작품들은 다른 작품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어쩌다가 누군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면 그것은 곧 기형(畸形) 작품이라고 억압을 받았다. 더 이상 참신한 작품이 없었고 생동력이 넘치는 작품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창작 능력은 사라지고 말았다.

해가 지남에 따라 그 공동체는 서서히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었고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났다. 혼란이 일었다(이사 34, 11). 결혼이 점차 줄어들었고 그나마 결혼 잔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예레 7, 34). 출생은 물론 희귀하였다. 그 사람들의 창작 정신은 사라졌다. 성전의 등불은 꺼진지 이미 오래되었다(예레 25, 10). 성전 건물 그 자체는 폐허화 하였고(에제 26, 12) 쥐와 부엉이가 사는 곳이 되어 버렸다(이사 34, 11).

몇 년이 지난 후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기억하고 그들을 찾으려 황야로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에제 26, 21).

이 이야기는 전 공동체의 영적인 몰락을 보여 준다.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하게 되고, 남을 믿지 못하게 됨으로써 창의성과 기쁨과 열을 잃어

버렸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그들은 존재하는 것 자체를 그치고 말았다.

요한 묵시록에서 우리는 바빌론의 몰락을 그린 부분을 읽을 수 있다. 요한 묵시록은 박해 시대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하여 쓴 것이어서 그곳 공동체에 입교한 사람들에게나 이해 될 상징적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다.

어떤 면에서, 바빌론은 그 당시 알려진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의미하였다. 유대인들이 유배갔던 나라의 수도였던 바빌론은 야훼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과 동일시 되기도 하였다. 바빌론은 악(惡)과 부도덕(不道德)의 도시로 간주되었다. 히브리 예언자들에게 바빌론의 몰락과 붕괴는 하느님의 심판과 벌의 징표(徵表)로 보였다.

바빌론의 몰락의 깊이는 그 도시가 이전에 이룩한 성취와 창작의 높이에 비례한다. 오늘날에도 바빌론은 미술과 건축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한때 그렇게도 아름다웠고 우수한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도시가 황폐된 것은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성기의 바빌론은 고도로 발달한 인도적(人道的)인 정부(政府)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바빌론 사람들은 과학, 점성술 및 수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시대의 유물들을 보면 그 당시의 기술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 당시의 신화(神話), 찬미가(讚美歌), 및 역사를 기록한 것은 바빌론 사람들이 근대 문명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공헌 중의 하나이다. 이 찬미가들과 이야기들을 통하여 바빌론과 초기 유대인의 전통 및 신조들 사이에 있는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보물들은 우리가 현시대에 성서와 그 근원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바빌론을 이렇게 높은 문명의 중심지로 끌어 올린 바로 그 요인들이 또한 그 몰락을 초래한 요인들이었다는 것이 큰 역설(逆說, Irony)이다.

몇몇 찬미가와 다른 문헌들에서 보여지는 이상주의(理想主義)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의 종교는 도덕적으로 별 영향력이 없었다. 이 세상과 부(富)를 강조함으로써 미신적인 관례만 남은 피상적인 종교로 그치고 말았다.

유대의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바빌론의 몰락은 단순히 외적인 정치적, 경제적 현상으로

만 여겨질 수 없었다. 그것은 물질적인 자제력이 없었고 도덕적인 규율이 없었으며 종교적인 뿌리가 없었던 민족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었던 필연의 결과였다.

나라들 가운데서도 진주같은 바빌론,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과 영광인 바빌론이
 하느님의 손에 망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영원히 무인지경이 되어
 대를 이어 그 곳에서 살 사람이 없으리라.
 아랍 사람들도 천막을 치러 오지 않고
 목자들도 풀을 뜯기러 양떼를 몰고 오는 일이 없으리라.
 들짐승들이 뒹굴고
 사람 살던 집에서 부엉이가 우글거리리라.
 (이사 13,19-20 : 예레 50,1.45 ; 51,55 참조).

요한 묵시록은 죄에 물든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자들의 격렬한 비판에 근거를 둔다.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의 표현은 너무도 적나라하여 우리의 의식 깊숙이 파고 들어오며 역겨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현 시대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현 시대의 죄에 물들어 있는지 깊이 관상할 때 우리는 바로 이와 똑같은 역겨움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 지옥의 본질인 상실(喪失)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죄악에서 지켜줄 것이다.

+ 기도 방법 :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죄의 필연적인 결과인 상실의 아픔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가공할 모든 죄를 인식한다.

내 손 안에 실제로 또는 상상 안에서 지구의(地球儀)를 든다. 서서히 그리고 부드럽게 내 손 안의 지구를 돌리면서 지구상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를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본다.

나는 다음에 대해 깊이 묵상한다 :

- 지구상에 널리 빈곤과 기아와 결핍을 초래한 탐욕과 과소비
- 강간, 학대, 살인 등을 낳은 폭력
-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정부 관리들을 타락시키고 - 공기와 물을 오염시킨 불경(不敬)의 태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러한 죄들의 무서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한다.

오관을 차례로 사용하여 이 죄의 현실의 중압감을 느껴 보도록 한다. 나는 죄를 맛보고,죄를 바라보며,죄를 듣고,죄를 느끼며,죄를 냄새 맡겠다.

+ 마침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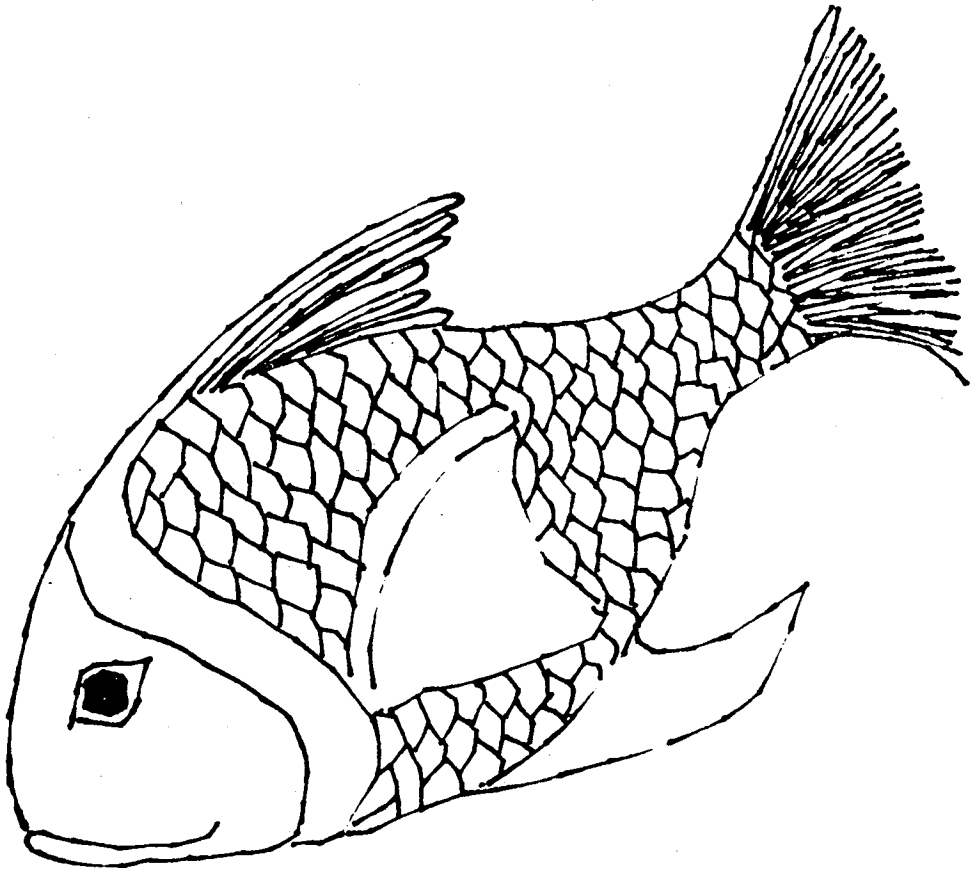
나의 마음과 가슴에 떠오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이 세상의 죄와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 지구를 파괴되지 않도록 계속 지켜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

이 기도중에 체험한 모든 느낌들, 예를 들면 깊은 슬픔이나 상실감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 22-23).

이 성서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두려움에 떨며 어느 집에 모여 있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하신 부활의 인사였다. 제자들에게 용서의 선물을 갖고 오신 것이었다.

우리는 이 선물을 결코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교도들은 용서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들에게는 단지 숙명(宿命)이 있을 뿐이었다. 구약에 있어서의 기쁜 소식은 하느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산산이 부숴진 상태에 있었을 때 용서하셨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용서하셨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비판을 받았고 하느님을 모독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결국은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과 용서받고 용서하는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슴과 손 안에서 또한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과 손 안에서 용서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스러움과 부서짐 그리고 용서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짐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이시다.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십시오”(야고 5, 16).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은 신부나 목사, 즉 비밀 보장을 서약한 성직자일 것이다. 자기들의

종교적 전통상 이러한 성직자들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른 사람”은 친구이거나 또는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어떤 현인(賢人)일 수도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죄스러움의 뿌리와 그 영향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대하여 묵상하였다. 이제 우리는 “고백(告白)”을 통하여, 즉 우리가 서로 치유와 용서를 필요로 함을 함께 나눔으로써, 보다 깊은 치유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이 고백을 위한 준비들이다.

1. 감사 -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성공하였나? 나는 최근에 어떤 징표들 - 사람, 사건 - 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였나? 왜 일이 잘 풀렸나? (휴식, 긴장 감소, 보다 많은 기도, 긍정적인 관점, 등)

2. 성찰 -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음의 질문들을 던져 본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였나? 지금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떻게 더 치유되기를 바라시는가? 무엇이 나의 삶의 최악의 순간들이었나 - 긴장, 낙심, 권태, 상처의 순간들 등등?

마음의 상처들에 대한 나의 반응들:

자존심 - 나는 언제 진정한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써야만 했나? 즉, 나는 언제 거짓말을 하였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으며 화를 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무시하였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인 판단을 내리는 나의 태도는 나 자신의 죄스러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허풍”을 떨지는 않는가?

탐욕 - 나는 언제 돈, 재산, 그리고 시간이 선물이기 보다는 내 것인 양 행동하는가?

욕정 - 내 몸의 각 부분이 어떻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있는가?

분노 -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걱정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점에 대하여 분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가?

나는 실패와 긴장 및 마음의 상처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해 왔는가?

나는 언제 행동(자유로움)하기 보다는 반응(경쟁, 부화뇌동)만 보였나?

나는 대하기 곤란한 사람들(이기적인 사람, 불평분자, 가난한 사람)을 언제 회피하는가?

나는 나의 분노를 직접 대면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두통, 소화불량, 우울 등의 육체적인 고통을 초래하는가?

과잉 - 나는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도피하는가?

.....과음, 과식, TV 중독, 지나친 공부나 일, 충동적인 소비?

시기 - 나는 나 자신을 돋보이려고 남을 비판하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배 아파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칭찬하도록 하기 위하여 속과는 달리 나의 성공을 변변찮게 말하지는 않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건성으로 듣지는 않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느낌에 동정심을 갖는가?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가? 대하기 곤란한 사람들과도 사귀는가?

나는 친구들에게 성실한가? 하느님께 충실한가?

태만 - 긴장이 없는 삶을 위하여 모험을 회피하거나 희생하지 않으려 하지 않는가?

나는 열정을 가지고 살기 보다는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는가?

나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에 살며, 미래를 계획하는가?

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나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가?

나는 무엇을 (육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소홀히 하는가?

나는 나의 가족, 공동체, 교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소홀하지는 않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루 중 어느 부분을 다르게 생활하실 것인가?

3. 슬픔-나의 행동이 나와 이웃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상해드렸나?

위에 열거한 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가? 그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상해드렸나? 다른 사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상해드렸나? 그 상처가 어떻게 번져 나갔나? 나는 내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해서 슬픔을 느끼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도 상하셔서 슬픔을 느끼는가? 나는 큰 노력을 들여서라도 내가 변화되기를 바랄 정도로 슬픔을 강하게 느끼는가?

4. 치유-나는 왜 그리스도께 이렇게 해드리는가?

나는 불안, 죄의식, 두려움, 긴장, 실패감, 또는 적대감을 느끼거나 감추지 않는가?

나는 왜 어느 특정한 일에 매력을 느끼는가? 나는 그것에서 무엇을 얻는가 -권력, 인기?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기에 그러한 방법으로 반응하게 되었나? 그 일에 어떤 특별한 정해진 행동 양식이 있는가?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나?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는가?

5. 용서-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나? (무조건, 기꺼이, 전부). 나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나에게 상처를 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베풀 수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것처럼 말할 수 있는가?

6. 변화 -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진실로 믿는가? 나는 탕자(루가 15장)처럼 느끼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발을 씻어 준 여인(루가 7, 36 이하)처럼 느끼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사실 것인가? 지난 삶을 되풀이 하는 내 자신을 상상할 수 있는가? 나는 왜 변화되고 싶어 하는가?

나는 변화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意志)를 어떻게 내 스스로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가? [의지의 훈련 p. 90] 〈예: 매일매일의 극기(克己), 기도, 보상(報償)……〉 나는 스스로 보속할 수 있는가? 〈예: 편지 쓰기, 이웃 방문, 경의(敬意) 표시, 단식 등등.〉

[위의 고백 준비 양식은 Dennis Linn and Matthew Linn 의 「Healing of Memories」 pp. 89-132 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한국어 번역 「기억의 치유」 엄영호 번역 참조 (역자 주)]

루가 7, 36-50

예수께서 어떤 바리새이파 사람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마침 그 동네에는 행실이 나쁜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예수께서 그 바리새이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예수 뒤에 와서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어 드렸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이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저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며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하고 중얼거렸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시몬아,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을 진 사람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돈놀이꾼은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하였다. 예수께서는 "옳은 생각이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 보시며 시몬에게 말씀을 계속하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 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 발라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 주었다. 잘 들어 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네 죄는 용서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와 한 식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저 사람

이 누구인데 죄까지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셨다.

해설:

“평안히 가라!”

살롬 -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하신 인사 말씀이었다(요한 20,21).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 말은 우리 말 “평화”가 갖는 뜻보다 훨씬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함과 안녕을 축원하는 뜻을 지닌다.

이 평화는 루가 복음사가가 좋아하는 주제(主題)이다.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고 향유를 발라 준 여인에 대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하여 성 루가는 우리에게 살롬으로 이르는 길을 보여 준다. 루가는 그 여인이 믿음, 용서, 그리고 사랑 때문에 이 평화를 얻었음을 보여 준다.

이 설화에서 루가는 이 사건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두 빗쟁이의 이야기를 곁들였다.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불리운다. 아람 어 -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었던 말 - 에서는 “빗쟁이”라는 말이 “죄인”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졌다. 그러므로 이 설화 안에서 우리는 이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어느 바리사이파 사람의 집에서 이 이야기의 막이 오른다. 넓은 정원에 손님들이 모여 있었으며 막 식사를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 손님들은 의자에 앉지 않고 식탁 옆에 놓인 등이 낮고 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바리사이파 사람인 시몬으로부터 초대받은 예수님도 그 안에 계셨다. 루가는 시몬이 왜 예수님을 초대하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던 바리사이

과 사람들 중의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인기 있는 랍비를 초대함으로써 다른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 혹은 예수님께 도전하여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방문객 중에 랍비가 있는 경우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와서 대화를 듣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식사중에 구경꾼 속에 끼어 있던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왔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 일부러 그 집에 왔다. 이 여인은 “예수 뒤에 와서 발치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이 여인은 그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그 여인은 자기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자 몸을 굽혀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 냈다.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순간 감동을 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이 여인은 다른 유대 여인들처럼 목에 걸고 있던 조그만 향유병을 꺼내었다. 무릎을 꿇고 하얀 옥합을 열어 예수님의 발에 향긋한 냄새가 나는 향유를 발라 드렸다.

이 여인은 누구였는가? 루가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단지 이 여인이 “평판이 나쁘고,” “죄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 흔히 이 여인이 창녀였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몇몇 학자들은 이 여인은 어느 추방당한 사람-아마도 세리였던 사람-의 부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시몬은 이 여인의 놀라운 행동을 보고 속으로 언짢게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시몬의 눈빛에서 번뜩이는 의심을 눈치 채셨는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서는 “시몬아,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빛을 탐감받은 두 빛쟁이의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는 질문을 던져 시몬으로 하여금 빛을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더 감사한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마지못해 인정하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조건 없는 용서를 체험함으로써 사람이 어떻게 놀라운 사랑과 관대한 행위를 하게 되는지를 시몬에게 보여 주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시몬의 답변을 들으시고 그것을 시몬에게 직접 적용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시몬과 그 여인을 비교하시며 시몬을 준엄하게 꾸짖으셨다.

시몬은 가장 기본적인 유대인의 예의마저도 소홀히 하였다. 여행자의 발을 씻음으로써 먼지를 닦아 준다든가, 손님에게 입을 맞추든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줌으로써 손님에게 환영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 그 당시 그들의 관습이었다. 이런 접대 없이 초대된 손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외적인 관습은 깊은 심리적인 뿌리를 갖고 있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이었고 입맞춤은 우정과 용서의 표시였다. 향유는 치유와 즐거움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주인은 이러한 아름다운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하여 손님으로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살림을 체험하도록 인사를 하였다.

시몬은 이러한 관습조차도 무시함으로써 그의 손님이었던 예수님의 명예를 크게 모독하였으며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체면도 실추시킨 것이다.

반면에 이 여인은 스스로 용감하게 예수님을 뵈러 왔다. 예수님을 뵈는 그 여인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생명과 기쁨의 원천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눈물을 통하여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였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여인은 즉각 예수님의 발에 거둬 입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여인의 사랑도 또한 넘쳐 흘렀다.

예수님께서서는 용서를 받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이렇게 자유롭고 완전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음을 깨달으라고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오, 불쌍한 시몬! 그가 사랑을 보이지 못한 것은 아마도 용서를 받고자 하는 갈증이나 필요를 깊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누구인데 죄까지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 (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은총을 구함 : 나는 그리스도 내 주님께 그분의 부르심을 알아들을 수 있고, 나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관상 (26~27쪽)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은 나 자신을 상상해 본다.

상상 속에서 이 이야기 속의 여인의 역할을 맡아서 바리사이와 사람의 집으로 간다. 나의 전 오관을 사용하여 그 상황 속으로 나 자신을 끌고 들어간다. 나는 예수님께 다가가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나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바른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동정심과 사랑에 가득한 그분의 표정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 마침기도 : 주의 기도

그리스도와의 담화로 기도를 마친다. 나는 그리스도께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드린다.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마음을 모두 바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

이 기도중에 받은 모든 느낌과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 일기에 적는다.

여섯째 주, 셋째 날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기도 준비 : 나는 하느님의 현존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기도를 시작한다.

나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존함을 의식하면서 나의 모든 것 - 생각과 말과 행위 - 을 더욱더 하느님을 찬양하며 하느님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십사 간청한다.

나는 그리스도 내 주님께 그 분의 부르심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와, 나에게서 바라시는 주님의 뜻에 아낌없이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제 1 부 : 나는 이 기도의 첫 부분에서 훌륭한 삶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 온 위대한 사람들을 기억한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뜻을 나누고 심지어는 그들의 일에 동참할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주위로 끌어들일 수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한다. 나는 이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좀더 깊이 생각해 본다. 내가 존경하는 한 분을 선택한다 - 요한 23 세, 고레따 킹, 마르틴 루터, 닥 해머스요드, 아빌라의 테레사,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마하트마 간디, 윈스톤 처칠,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알버트 슈바이처, 마담 퀴리..... 이 한 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다음의 것들을 묵상한다 :

+ 사람들이 이 분께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어떻게 감동을 받아 그 분의 이상을 따르고 그 분의 생활 태도, 갈등, 고통 및 일에 동참하였나;

+ 이 분이 지불해야 했던 대가 즉, 그 분이 포기해야 했던 물질 소유, 가족과 집, 친구

들, 명예, 또는 생명 그 자체.

제2부 : 나는 이 기도의 두번째 부분에서 내 앞에 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인용문들을 읽으며 왜 예수님께서 지도자이시며 왕이신지 생각해 본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모두 그 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 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골로 1,13-16a, 17b).

“주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의 백성을 모으시어, 그들로 하여금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시나이다”(성찬의 기도 제3 양식).

“성부는 당신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어 영원한 사제와 만민의 왕으로 삼으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원하고 공변된 나라를 지존하신 성부 이전에 바치셨나이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요,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소이다”(그리스도 왕 대축일 감사송).

‘나는 나의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고자 하며 전 세상을 하나로 묶어 모아서 이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악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곧 나의 염원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선택해야 한다어떤 고통이나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함께 완전한 생명의 나라, 나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지도자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같이 부르시지만,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고유하게 나에게 맡겨진 특별한 역할을 받아들이고 응답하기를 바라시면서, 나를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신다. 이러한 주님의 부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이 목적이 얼마나 합당하고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이 반드시 달성되리라고 나를 어떻게 확신시켜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기를 마다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 자신과 그들의 소유 전부를 바쳤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 바친 그들의 결심을 방해하거나 흐트러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하고 대항해 싸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 마침기도 : 다음을 깊게 생각할 것이다 : 나는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자 하고 봉헌하고자 바라는가? 이를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

그리스도의 관심과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을 내가 어떻게 체험하는지 영적 일기에 적는다.

필립 3, 7-10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해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장해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해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로는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건너갔다(사도 9, 1-19; 22, 5-16; 26, 10-18).

바울로는 극적인 회개를 통하여 전혀 새롭게 탄생하였다. 바울로는 바로 그 날부터 스스로의 체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건너가도록 격려하는 용감한 사도가 되었다.

바울로의 회개는 다른 한편으로 악몽과 같은 것이었다! 그의 꿈과 희망과 야심이 성취된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다.

눈이 먼 채로 바울로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

재능이 많고 야심이 만만했던 바울로는 그의 생애의 전반(前半)에서 권위주의적인 바리

사이파의 가치 체제를 광신적으로 받아들였고 거기에 자신을 바쳤다. 바리사이파의 가치 체제에 충성했던 바울로는 완벽한 바리사이파의 이상(理想)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의 모든 정열을 기울였다.

바울로는 외적으로 그 바리사이파의 이상(理想)의 화신(化身)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는 스스로의 정체(正體)와 창의성을 상실한 채 불모(不毛)의 경지에 있었다.

바울로는 여러 해 동안 자신을 채찍질해 가며(사도 26, 14) 공부를 열심히 하여 마침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다(사도 22, 3).

그는 대사제들과 원로들로부터 쉽게 인정을 받았다.

스스로를 학대했던 바울로는 당시 막 피어나던 그리스도교를 말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바울로는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오정 때쯤에……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나타나 그의 주위에 두루 비쳤다”(사도 22, 6).

바울로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사도 22, 7). 이 질문은 바울로로 하여금 스스로의 자아를 대면하게 만들었다. 이 위대한 빛의 힘과 권세에 압도된 바울로는 삼일 동안 눈이 멀게 되었다.

바울로가 겪었음에 틀림없는 내심의 격한 갈등과 혼란을 한번 상상해 보라! 마치도 그의 전 생애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으리라. 그의 내심은 새로운 전망, 의문, 및 각성으로 넘쳐 흘렀으며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이전의 가치 체제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다. 그가 그 때까지 자신의 장점이라고 믿어 왔던 것들이 이제는 자신의 약점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약해지고 눈이 먼 바울로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한 사람을 보내시어 그를 인도하게 하셨다.

자신을 비운 바울로는 이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들였다. 부활하신 주님의 힘과 비전을 가지고 바울로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평생 동안 스스로의 완전성을 추구함으로써 율법 속의 하느님을 찾으려고 했던 바울로는 이제 인간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다.

이제 바울로에게는 모든 것이 전혀 새로웠다. 스스로 옳다고 믿었고 규율과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왔었으나, 이제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느님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이제 중심은 바울로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율법에서 사랑으로, 완벽증(完璧症)에서 성숙한 완전성으로 옮겨졌다. 율법을 맹목적으로 지켰던 바울로는 이제는 창조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지식을 자랑하던 그가 이제는 “마음을 아는” 친밀함을 강조하게 되었다. 맹렬한 박해자였던 바울로는 설득력 있는 선생으로 바뀌었다.

이제 바울로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필립 3, 10) 만을 바라게 되었다.

바울로에게 있어서 믿음은 더 이상 지적(知的)인 동의(同意)로 그칠 수 없었다. 그의 믿음은 이제 내적인 예민성을 갖는 “관계”로 변화되어 바울로는 삶의 근본적인 의미와 완전성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바울로의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헌신 안에서 이 특별한 신앙의 은총을 볼 수 있다.

바울로는 이 “확신과 결심”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의 힘을 받았다.

이 성령은 믿음을 가지게 될 사람들이 체험할 놀라움을 선포하는 일을 꾸준히 수행하는 힘을 바울로에게 불어 넣어 주었다.

대조(大鳥)가 불길을 잡고, 잠자리가 불꽃을 당기듯이

.....

사멸(死滅)할 모든 것은 한 가지 일만 한다:

.....

내 자신이 이를 말하고 있으니;

나의 행동이 나 자신이라고 외치며 : 그것을 위해 나는 왔다.

더 말해보라 : 정의로운 이가 정의를 실천한다 ;

은총을 보존한다 : 그의 모든 일을 은총으로 지킨다 ;

하느님이 보시는 그 자신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한다.

그리스도.....

바울로는 남은 여생을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세계 방방 곡곡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데 바쳤다(사도 26, 18).

기도 안내

194 쪽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나의 응답에 따라 기도하면서 그 첫 부분에서 성 바울로를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택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나에 대한 개별적인 부름인 두번째 부분을 계속한다. 그리고 마침기도와 기도 후 반성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

루가 5, 1-11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겐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는 예수를 에워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둔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시몬의 배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배에 올라 시몬에게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 놓게 하신 다음 배에 앉아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하셨다.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하고 대답한 뒤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 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같이 고기를 끌어 올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에 가득히 채웠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집어 먹었던 것이다. 그의 동료들과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는데 그들은 다 시몬의 동업자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배를 끌어다 호숫가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해설:

이것은 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이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베드로의 놀라운 행동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멋지게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특히 밤새도록

애쓰고도 한 마리도 못 잡은 후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니…….

루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존경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화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불러 일으킨다.

고기잡이는 겐네사렛 호숫가에서 살던 사람들의 생계 수단이었다.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고기잡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고기는 그들의 주식이었고 고기잡이는 그들의 주요 직업이었다. 고기잡이는 힘든 일이었고 갑작스러운 풍랑이 몰아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한 때도 적지 않았다. 유능한 고기잡이가 되는 것은 큰 자랑이었고 물고기 잡는 기술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전수되었다.

이 사람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오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 또 무엇이 있었겠는가?

신약에는 물고기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사막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종일 보낸 후 허기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신 이야기도 물고기에 관한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많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정말로 살아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물고기를 잡수셨다는 즐거운 이야기는 그중의 하나이다(루가 24, 42-43).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은 후 호숫가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해 두심으로써 그들을 놀라게 하셨다. 예수께서 거기에 계셨으며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요한 21, 9-13).

초대 교인들에게 물고기는 일용할 양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물고기는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게 되었다.

로마에 남아 있는 지하의 카타콤바에 가면 그리스 두자어(頭字語, acronym, 단어의 첫 글자들을 모아서 만든 말) -IXOYC- 와 그 위에 새겨진 물고기의 그림들을 볼 수 있다. 이 그리스 글자들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구절의 첫자들이다.

예수님 탄생 훨씬 이전부터 물고기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B.C. 3 세기에 쓰여진 바빌론의 문헌에 오아네스(Oannes) 신화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오아네스는 물고기 신(神)으로서 바다에서 올라와 사람들에게 예술과 문명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물고기의 상징적 의미는 발전적이고 집단적인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 우리들의 꿈속에 나오는 물고기는 미개발의 상태에 있는 에너지와 잠재의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한다.

목시록, 신화, 역사서 및 꿈 안에 살아 있는 흐름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 우리는 물고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는다면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와 창의력과 기적적인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보여 주신 약속이었다.

단순한 생활인이었던 베드로는 평생을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본 베드로는 완전히 압도 당하고 말았다. 그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본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알아보았다!

무릎을 꿇으면서 그는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였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안심시키시고 확신시키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한 말씀의 힘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와의 일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체험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보여 주신 권능과 약속은 너무도 강하여 그날 이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따라 생활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2권

대로 실천하였다. 베드로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기도 안내

194 쪽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나의 응답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 첫 부분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성 베드로를 택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나에 대한 개별적인 부름인 두번째 부분을 계속한다. 그리고 마침기도와 기도 후 반성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

여섯째 주, 여섯째 날

반복 : 나의 응답

194 쪽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나의 응답에 따라서 기도한다. 특별히 제2부에 중점을 둔다. 나는 나 자신을 봉헌하는 기도를 예수님께 바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주 이 기도를 바치기로 결심한다.

부 록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성서 구절들과 해설들을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과 맞추어 나열하였다.

괄호 안의 번호는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의 원본에 있는 번호를 나타낸다.

원리와 기초 : 시리즈 첫권 「사랑」 참조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로마 5, 5-11).....40

수련 1 : 세 가지 죄

(50) 천사들의 반역 (Ⅱ베드 2, 1-22).....46

(51) 아담과 하와의 죄

선택 : 자신이나 하느님이나 (창세 3, 1-7).....51

죄의 승인(로마 5, 12-21).....55

(52) 지옥에 떨어진 사람

한 사람의 타락(루가 16, 19-31).....59

수련 2 : 죄의 결과

(56)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경고(에제 16, 1-22 ; 59-63).....66

기억함 1, 2 (에제 16, 1-22 ; 59-63).....71

(57)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Ⅱ사무 11, 1-21. 27 ; 12, 1. 7-10. 13-25).....76

(58) 깊은 구렁으로부터(시편 130).....82

(59)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다(욥기 42, 1-6).....87

(60) 실향(에제 35, 25-29).....91

자비를 구하는 울부짖음(시편 51).....96

수련 3: 죄의 뿌리

(63) 사랑에의 결심(마태 25, 31-46).....	104
갈등(로마 7, 14-25).....	110
당신은 선택해야만 한다(I 요한 2, 12-17).....	115
유혹(야고 1, 13-18).....	121
축복인가 저주인가(야고 3, 2-12).....	126
자아와의 대면(야고 4, 1-10).....	133
헛된 보물(루가 12, 16-21).....	138
위선의 가면(마르 7, 1-23).....	142
바리사이파 사람인가 세리인가(루가 18, 9-14).....	150

수련 4: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용서

(64) 용서하시는 아버지(루가 15, 11-32).....	156
귀향(루가 15, 11-32).....	162

수련 5: 지옥에 대한 명상

(65) 최후의 상실 1, 2(히브 10, 26-29).....	168
최후의 몰락(요한 묵시록 18, 2, 21-23a).....	175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르심

(90) 화해: 용서의 시간(요한 20, 22-23).....	184
(91-98) 감사의 눈물(루가 7, 36-50).....	189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194
바울로의 부르심(필립 3, 7-10).....	197
베드로의 부르심(루가 5, 1-11).....	201
(98) 반복: 나의 응답.....	205

성서 구절 색인

창세기

1, 2	83
3, 1-7	51
4, 1-16	56
6, 5이하	56
11, 1-9	56

출애굽기

20, 8	71
34, 6-7	84

레위기

25, 23	61
--------------	----

신명기

6, 5-6	144
32, 21a	136

사무엘 하권

7, 13	
11, 1-21, 27; 12, 1, 7-10, 13-25	76-78

욥기

42, 1-6	87
---------------	----

시편

51	96
51, 3-4a	151
105, 5, 8	71
130	82

집회서

28, 18, 21a	127
-------------------	-----

이사야서

13, 19-20	179
34, 11	177
48, 6	72
66, 24	169

예레미야서

7, 34	177
25, 10	177

에제키엘서

1, 4-28	92
3, 2-3	29
16, 1-22, 59-63	66-67
26, 12	177
26, 21	177
36, 25-29	91

마태오 복음

8, 12	170
10, 28	170
18, 20	33
22, 37-38	135
25, 31-46	104

마르코 복음

7, 1-23	142
9, 49	170

루가

5, 1-11	201
7, 36-50	189-190
12, 16-21	138
15, 11-32	156-157, 162
16, 19-31	59
16, 26	170
18, 9-14	150
24, 42-43	202

요한 복음

20, 21	190
20, 22-23	184
21, 9-13	202

사도행전

9, 1-19	197
17, 28	113
22, 5-16	197
26, 10-18	197

로마서

5, 5	42
5, 6-11	40
5, 12-21	55
5, 21	57
7, 14-25	110
8, 15, 26	28

고린토 전서

15, 22	57
--------------	----

에페소서

2, 4-5a	163
2, 13-19	164
3, 4	29

필립비서

3, 7-11	197
---------------	-----

골로사이서

1, 13-16a, 176	195
----------------------	-----

디모테오 전서

4, 14이하	128
---------------	-----

히브리서

6, 8	169
10, 26-29	168, 173
12, 28	140

야고보서

1, 13-18	121
3, 2-12	126
4, 1-10	133
5, 16	184

베드로 후서

2, 1-11	46
---------------	----

요한 1서

2, 12-17	115
----------------	-----

요한 묵시록

18, 2.21-23a	175
19, 20	170
20, 10	170
21, 5	72

이나시오 영성생활 지침서

— 사랑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첫번째 책인 이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불편심과 투신 등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사랑 및 그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자유로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며 하느님께 봉사하라는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강연중 옮김/192쪽/5,000원).

— 용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두번째 책인 이 「용서」는,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의 첫째 주간과 관련되는데 여기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는 개인과 인류 전체의 죄스러움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비추어 죄와 죄인의 문제를 고찰한다(강구영 옮김/216쪽/5,000원).

— 탄생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세번째 책인 이 「탄생」은, 예수님의 성령을 구현시키는 인생 여정에서 각자에게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삶이 지니는 심오한 의미를 개인적으로 발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활을 하시는 동안 스스로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지상 삶을 관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조순자 옮김/224쪽/5,000원).

— 포기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네번째 책인 이 「포기」는,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예수의 전적인 복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관상함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어떻게 활용되며 변형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한다(조순자 옮김/216쪽/5,000원).

— 자유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마지막 책인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관상함과 아울러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며 그분의 비전과 임무를 함께 나누도록 초대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쁨과 현존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조순자 옮김/224쪽/5,000원).

— 참 진리는 이것이다

이 책은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개신교의 주장들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한 친절한 해답을 주면서 시비를 가려 주고 있다. 개신교 신자들은 이를 읽음으로써 가톨릭에 대한 허망된 오류를 불식하여 대화를 가능케 할 것이고, 가톨릭 신자에게도 개신교의 오해가 어떤 것인지 이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 것인지, 더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도 반성케 함으로써 상호간의 일치와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종현 지음/504쪽/7,000원).

— 아일린 조지

딸기의 암 환자로서 여덟 자녀의 어머니이며 교회 내에서 가장 빠르게 커가는 봉사 조직을 갖고 있는 아일린 조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려고 전세계를 다니며 애쓰고 있는 그녀가 미국과 해외의 많은 열광적인 청중들에게 전해 왔던 하느님의 메시지를 모은 책(아버지와의 만남 사도직회 역음·김혜자 옮김/256쪽/3,000원).

—— 그 나라가 임하시며(주의 기도 해설)

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완전한 기도, 가장 많이 외우는 기도이지만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입으로만 외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 주의 기도를 쉽게 풀이한 해설서(배문한 지음/104쪽/2,500원).

—— 그리스도의 향기

성인이 되는 것은 믿는 이들 모두의 소명이다. 삶의 전부를 바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 전 세계 성인 108분의 거룩한 생애를 통하여 고통중에 있는 많은 이들이 위안과 용기를 얻고 성인들의 굳은 신앙과 뜨거운 사랑을 본받아 믿는 우리 모두를 성인·성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는 성인전(배문한 지음/528쪽/7,000원).

—— 영성생활 시리즈(20권)

‘영성생활의 마르지 않는 샘’인 성서의 말씀을 쉽게 묵상하고 남들에게 전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신앙 활성화와 사도직 수행에 큰 도움이 되게 하는 이 책은 신앙생활의 초심자를 비롯하여 하느님으로 알고 섬기려는 이들의 필독서이다(이홍근 지음/①②③⑤: 각권 1,500원, ④⑥⑦⑧⑨: 각권 1,300원, ⑩~⑳: 각권 1,000원: 세트 구입시 20,000원).

—— 기도의 신학

하느님의 구세사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 사건들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현존에 응답한 기도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기도의 심리학을 전제하면서 기도가 인간의 실존적 요구에 어떤 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파비오 자르다니 지음·전달수 옮김/168쪽/3,000원).

—— 사제는 사제를 필요로 한다

캐나다 교회의 신부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현대 심리학과 전통적인 영성수련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다룸며 특히 사제는 사제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사제다워짐을 분명히 하는 이 책은 사제들과 신학생들의 삶에는 물론, 사제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평신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에밀 브리에르 지음·전달수 옮김/120쪽/2,500원).

—— 예수 기도

영성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며 실제로 사는 것이므로 일상생활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숨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좋은 신심이 될 이 예수 기도는, 언제나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사도 성 바울로의 말씀을 실천하는 기도로서 마음은 있으나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유익할 것이다(페르 올로프 스코그렌 지음·전달수 옮김/104쪽/2,500원).

—— 개신교의 성서 근본주의

성서에 대한 가톨릭과 근본주의파들의 이견을 살펴봄과 동시에 그들의 논리를 좀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책은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의 질문에 답을 구하는 가톨릭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안토니 질리스 지음·김세을 옮김/112쪽/2,500원).

—— 요세비의 꿈

인간이 자신에 대한 신념과 참 삶의 실현을 위해 현실의 벽들을 왜, 어떻게 뛰어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위기로부터의 초월 방법과 미래 지향적인 새 삶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책(알폰소 라라 카스띠야 지음·김세을 옮김/120쪽/2,500원).

———혜숙이와 박 신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의 저자 박도식 신부가 엮어낸 또 하나의 인생론이자 가톨릭 입문서인 이 책은, 한 젊은 여성과의 대화 형식으로 쓰여져 있으며 종교의 필요성, 신앙과 지식, 인생의 부조리 등 42가지로 분류한 알기 쉽고 간결한 내용으로, 입교를 준비중인 예비자는 물론 가톨릭 교리 전반에 대해 좀더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박도식 지음/180쪽/3,000원).

———하느님께 나아가는 일곱 단계

영성을 알고 살고 나누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영성생활로의 길잡이인 이 책은, 하느님의 구원능력을 받아들이고 인간이 변화되어 용서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새 인간, 새로운 질서를 인격 안에서 경험하고 타인과의 관계와 생활현장에서 구원의 능력을 나누고 증거하는 실천적 지혜를 담고 있다(백 겹마마리 옮김/104쪽/2,500원).

———들음의 신비

들음이 없이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느님의 뜻을 모르고서 어떻게 그 놀라운 초대에 맞게 응답할 수 있겠는가? 복잡한 현세의 삶에서 진리와 생명이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들음의 신비로 초대하는 안내서(김상옥 지음/110쪽/2,000원).

———살며 생각하며

이민생활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슬한 체험들을 시와 수필로 엮어 나간 이석현 님의 두번째 신앙 에세이집.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설수록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절감하게 되고 절대자 하느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됨에 따라 신앙 안에서 참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앙 묵상용 모음집(이석현 지음/168쪽/3,000원).

———사목상담의 원리

상담기술의 24가지 규칙을 말하며 일일이 그 예화를 들어 성공 혹은 실패 사례를 얘기함으로써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일선 사목자들뿐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상담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장 확실한 상담기술의 지침서(배문한 옮김/88쪽/2,000원).

———레지오의 관리와 운영(上·下)

전 광주 세나투스 김영대 단장이 레지오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본을 알기 쉽게 풀이한 레지오 단원의 길잡이. 지금까지 교본에 대한 해설서의 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단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상권에 이어, 상권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권에서 정리하여 레지오의 관리와 운영 上·下를 펴냈다(김영대 지음/上 208쪽·3,200원/下 304쪽·3,800원).

100-310 서울 특별시 중구 오장동 206-10 성모출판사 정옥동

TEL : (02)266-4251, 야간 0344)914-0924 FAX : 275-0925

- 전화 혹은 우체국 대체용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송료는 본사 부담으로 직접 우송해 드립니다.
- 은행 온라인 번호

국 민 은 행 : 025-01-0138-701 (정옥동) 조 흥 은 행 : 371-06-066966 (정옥동)

서울신탁은행 : 10904-0084908 (/) 우 체 국 : 010231-0016955-12 (/)

한 일 은 행 : 050-149710-12-001 (/) 우편대체번호 : 010231-31-1091768 (/)

상 업 은 행 : 123-05-037268 (/)

NIHIL OBSTAT

Joannes Lee Censor
Seoul, die 21 Mai. 1992

IMPRIMATUR

Stephanus Cardinal Kim
Archiepiscopus Seoulensis
Seoul, die 21 Mai 1992

용서(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2권)

1992년 6월 7일 초판

1995년 5월 13일 재판

글쓴이 재크린 시럽 버간 & 마리아 슈완

옮긴이 강 구 영

펴낸이 정 욱 동

펴낸데 성모출판사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206-10

전화 : 266-4251 FAX : 275-0925

등록 : 1988년 3월 21일 제2-530호

값 5,000원

옮긴이

강구영 (안토니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SU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경제학 박사
Salem State College 교수

감수자

변희선(안셀모) 신부

서울 가톨릭대학 졸업
예수회 한국지부본부 소속 회원
현재 미국 Boston College
조직신학 박사 과정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두번째 책인 이 「용서」는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의
첫째 주간과 관련되는데 여기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는
개인과 인류 전체의 죄스러움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비추어
죄와 죄인의 문제를 고찰한다.

 성모출판사